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75호 [루계 제25418호] 주체105(2016)년 10월 1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 설

김일성종합대학은 주체교육과 과학의 최고전당으로 끝없이 빛을 뿌릴것이다

우리 당이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따라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비약과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으며 200일전투의 최전방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종합대학졸업생들이 크나큰 감회와 기쁨속에 룡남산을 우러르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우리 나라 대학들의 모체이며 혁명인재양성의 중심기지이다.

주체35(1946)년 10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종합대학, 진정한 인민의 대학이 창립된것은 조국과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사변이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이 창립됨으로써 주체교육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자체의 힘으로 민족간부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인민에게 배움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로 온 세상에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하늘같은 은덕을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다.

지금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과 전국의 교육일군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불면불휴의 령도로 사회주의교육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 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인재를 키워온 혁명적인 대학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함께 강화발전되고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히 복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대학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이 창립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년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보살피심속에 주체의 사회주의대학으로, 민족의 자랑으로 빛을 뿌려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며 민족간부육성과 나라의 교육, 과학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긍지높은 력사이다. 세계에는 오랜 력사와 전통, 규모를 자랑하는 대학들이 적지 않지만 김일성종합대학과 같이 년대와 세기를 이어 혁명의 걸출한 수령들과 혈연의 뉴대를 잇고 자기 조국과 민족의 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온 대학은 없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학, 위대한 장군님의 대학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은 김일성종합대학이 혁명의 년대들마다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걸출한 령도자, 자애로운 스승이시였으며 교직원, 학생들을 한품에 안아 참다운 혁명가,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워주신 친근한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력적인 령도는 종합대학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힌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도 새겨져있고 전후 정부청사보다 종합대학교사부터 먼저 복구하도록 하신 혁명적인 조치에도 깃들어있으며 하나하나의 교육시설과 설비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종합대학을 무려 107차례나 찾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0여차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사실만 놓고서도 우리 수령님들께서 대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현대적인 수영관과 전자도서관을 마련해주시고 교직원, 학생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가 있었기에 김일성종합대학은 장장 수십성상 인민의 대학, 혁명의 대학으로서의 본태를 굳건히 고수하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해올수 있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1960년대 전반기는 종합대학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난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다. 이 시기에 대학안에 오직 당과 수령밖에 모르는 투철한 립장과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교육사업에서 주체성이 철저히 보장되게 되였으며 학생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사업으로부터 교무행정사업과 과학연구사업, 당사업에 이르기까지 종합대학의 모든 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김일성종합대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여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혁명사적관을 새로 꾸리도록 하시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종합대학령도사가 변함없이 흐르도록 해주시였으며 뜻깊은 친필서한을 보내시여 교원, 연구사들이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들을 마련해주시고 세계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수 있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최상급의 교육자살림집을 건설하고 새 교사들과 기숙사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 업적으로 길이 빛날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창한 앞날을 확신하고있다.

희세의 걸출한 위인들의 손길아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며 혁명의 년대들마다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린 수령의 대학, 주체교육과 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민족간부들을 키워내는 원종장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지난 70년간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수만명의 민족간부들을 키워내여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들은 새 조국건설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과 수령만을 진심으로 따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왔다. 그들속에는 당과 수령을 옹위하는 길에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영웅전사들도 있고 수십년간 철창속에서 혁명적지조를 지켜 굴함없이 싸운 비전향장기수들도 있다. 오늘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대중의 기둥이 되고 불씨가 되고있는 선봉투사들도 다름아닌 종합대학졸업생들이다. 당, 국가, 경제, 문화기관들과 여러 분야에서 핵심골간으로 되고있는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키워낸것이야말로 김일성종합대학의 가장 큰 공적이다.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정의 인간, 당의 혁명사상을 뼈속깊이 새기고 영원히 변치 않을 신념을 간직한 견결한 혁명가,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한 참다운 애국자, 유능한 인재들을 키워내는것은 조국과 민족의 전도와 잇닿아있는 중대한 사업이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훌륭한 민족간부들을 더 많이 키워내고 그들이 맡은 초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때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은 더욱더 강화되고 우리 혁명은 승승장구하게 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주체조선의 교육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전위기수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해나가는데서 언제나 척후대의 영예를 떨쳐왔다. 당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체계와 교육관리, 교육내용과 방법이 일신되고 대학교사로부터 교직원, 학생들의 문화생활과 후방보장시설에 이르기까지 물질기술적조건들이 그쯘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창립당시 7개 학부와 60여명의 교원들로 첫걸음을 뗀 종합대학은 오늘 7개의 대학과 수십개의 학부, 수백명의 저명한 원사, 교수, 박사를 포함한 강력한 교원력량을 가진 굴지의 종합대학으로 전변되였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부문과학, 경계과학들을 개척하고 혁신적이며 실효성있는 교육방법들을 창조하며 모든 면에서 기치를 들고나가고있는것이 김일성종합대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선구자적역할은 주체의 사회주의교육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나라의 모체대학, 본보기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이 교육과 교양, 대학관리운영 등 모든 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이룩해나가고있기에 주체교육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과학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과학연구기지이다.

지난 수십년간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벌려 우리 나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과학리론적으로 결사옹위하고 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며 주체의 사회과학발전을 앞장에서 선도하여왔다. 종합대학에서는 세계적인 기초과학분야들을 개척하고 원자힘현미경을 비롯한 첨단기술제품들을 개발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높이 떨치였다. 오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이룩되고있는 눈부신 성과들에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높은 실력을 지닌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의 애국헌신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슴배여있다.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관차이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같은 강력한 과학연구기지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만리마속도로 세계를 압도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게 될것이다.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교육사업에 나라의 국력과 혁명의 전도가 달려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교육중시사상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주체혁명의 만년토대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비약을 이룩해나가려는것이 현시기 우리 당의 의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주요대학들을 세계적인 일류급대학들과 당당히 겨룰수 있는 교육과 과학연구의 중심기지,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만들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교육으로 흥하고 교육으로 발전하는 주체조선의 위용을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주체적교육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육건설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이다.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특출한 위인적풍모가 집대성되여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데 주체의 사회주의교육의 밝은 미래가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교육사상리론을 백과전서적인 교육대강으로, 사회주의교육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교육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교육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명실공히 수령의 대학, 당의 대학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종합대학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줄기차게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서한은 김일성종합대학의 강화발전의 영원한 표대이다. 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모든 대학들에서 우리 당의 새 세기 교육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만들려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우리는 주체적인 립장과 안목에서 사회주의교육의 본태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교육사업을 우리 식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교육에서도 당당히 세계를 앞서나가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우리 당의 새 세기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나라의 본보기대학으로서의 영예를 계속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데서도 앞장서야 하며 인재강국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서도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모든 대학들에서는 대학생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한 지식과 높은 창조적능력, 고상한 도덕품모와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들로 키워야 한다.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정치사상교육을 확고히 앞세워 모든 대학생들을 과학기술을 알기 전에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줄 아는 진짜 혁명가, 참다운 애국자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교육을 지식전수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데로 확고히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학생들의 지적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키며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더 빨리 체득하고 활용할수 있게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여야 한다.

대학들에서는 인재양성목표를 바로 정하고 교육과학후비양성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20대, 30대의 세계적인 학자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들을 늘이고 교육수준을 높이며 원격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사업은 량심이고 헌신이며 애국이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가는 여기에 교육자의 삶의 보람이 있고 영예와 긍지가 있다. 모든 대학 교원들은 학생들이 크나큰 포부와 리상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나가도록 하는데 진심을 묻고 힘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교원들의 실력이자 학생들의 실력이고 교육의 질이다. 대학들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교원으로 키우는것과 함께 교원들속에서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그들모두가 교육자로서의 정치도덕적풍모와 과학리론적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대학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실력전의 된바람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부문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대학당조직들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속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이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사업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원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교육사상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이끌어주며 당사업을 교육사업, 과학연구사업과 밀착시키고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적극 밀어주어야 한다. 로교원들, 로학자들을 내세우고 잘 돌보아주며 그들이 당의 사랑과 은정을 언제나 잊지 않고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당조직들은 대학생들과의 사업에 품을 들여 그들이 청년강국의 주인공,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당적지도를 잘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이 학생들과의 사업을 창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은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다. 국가적으로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교육에 필요한 물질적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교육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고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교원들을 우대하고 내세워주는 사회적기풍을 세워 그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교수교양사업에 전심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수령의 대학, 주체교육과 과학의 최고전당으로 끝없이 빛내이며 사회주의교육건설의 찬란한 전성기를 펼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드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 삼가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

세계 여러 나라 대학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명망높은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을 맞으며 진행한 국제학술토론회를 성과적으로 끝마치면서 우리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존경하는 원수각하께 이 편지를 삼가 올리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는바입니다.

《과학발전과 사회적진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토론회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류사회의 진보를 더욱 힘있게 촉진해나가려는 세계 여러 나라 대학들과 김일성종합대학사이의 교류와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습니다.

우리들은 세계 여러 나라 대학들과 김일성종합대학 학자들이 인류사회의 진보를 위한 과학기술발전에서 함께 손잡고 친선의 뉴대와 정을 두터이 해나가도록 뜻깊은 국제학술토론회를 마련하여주신 존경하는 원수각하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토론회기간에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하루빨리 과학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올려세우기 위하여 눈부신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슬기로운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력사의 돌풍을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쳐물리치며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첨단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기적인 비약을 일으키고있는 귀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절이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수각하께서 제시기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조선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은 세계적인 일류급대학으로 지향해나가는 김일성종합대학과의 다방면적인 학술교류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는것이 인류사회의 진보를 위한 과학기술발전에 매우 유익하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거둔 훌륭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 김일성종합대학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 대학들과 김일성종합대학사이의 친선적인 교류와 협조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원수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 국제학술토론회 참가자일동

2016년 9월 30일 평 양

철령아래 사과바다에서 세세년년 과일파도가 세차게 일어나게 하자

고산과수종합농장 종업원들과 618건설돌격대원들의 궐기모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고산과수종합농장 종업원들과 618건설돌격대원들의 궐기모임이 9월 30일에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고산과수종합농장 종업원들과 618건설돌격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농장지배인 최충수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현철호, 작업반장 리철희, 618건설돌격대 현장지휘부 책임자 강성일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고산과수종합농장을 또다시 찾아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공급하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고산땅이 생겨 처음 보는 과일대풍을 이룩하였다고, 이 농장은 당정책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전형단위, 모범단위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사까지 주시였다고 그들은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령도밑에 펼쳐진 철령아래 사과바다에서 세세년년 과일파도가 세차게 일어나고 과일향기가 가득 넘쳐나게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수업의 집약화, 과학화수준을 높여 과일생산을 늘이며 전국도처에 건설한 남새온실과 버섯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결사관철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고산과수종합농장을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과수농장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며 과일생산에서 해마다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매 분장들마다에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고 열심히 학습함으로써 모든 종업원들이 지식형근로자가 되여 전국의 앞장에서 과학과수의 기치를 들고나아갈뿐아니라 돼지목장들을 더 건설하여 과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며 방울식관수체계를 완비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중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문제를 풀며 현대적인 과일가공공장을 일떠세울뿐아니라 살림집건설을 다그쳐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를 완전히 해결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의 은정이 깃든 농기계들을 적극 애호관리하고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과수작업의 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분장사이, 작업반사이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더욱 개선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농장을 세계굴지의 인민사랑의 대백과락원으로 전변시키며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형단위, 모범단위답게 과일생산에서 계속 집단적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핵보유의 대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업적 영원불멸하리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기념일을 맞으며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는 핵무기연구소 성명이 지구를 뒤흔들었다.

세계를 격동의 도가니속에 잠근 주체조선의 핵뢰성의 메아리가 날이 갈수록 커다란 진폭으로 누리를 진감한다.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에 혼비백산한 미국과 괴뢰패당이 분별을 잃고 또다시 도발광기를 부리고있을 때 세계각지에서는 과연 어떤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던가.

《이번 시험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모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들의 면상을 또다시 후려친 력사적사변이다.

…

조선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당당한 핵강국이다.》

《조선이 핵탄두폭발시험을 성과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번 시험으로 조선은 무진막강한 국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핵탄두를 연구제작하였다.

이것은 조선에서만 이룩될수 있는 대승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조선은 당당한 핵보유국이다.

조선의 핵타격수단들은 지구상의 그 어디든 타격할수 있다.

그 누구도 조선을 건드릴수 없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수 없다.》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영광이 있으라!》

…

자주롭고 정의로운 핵강국의 초강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고 해야 할것이다.

솟아올라도 폭발적으로 높이도 솟아올랐다.

1월의 수소탄보유선포로부터 6월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화성-10》시험발사의 대성공, 선군절을 앞두고 터친 전략잠수함 탄도탄《북극성》의 수중시험발사성공에 이어 이 땅에서 울려퍼진 9월의 핵뢰성이 온 세상에 거대한 정치대지진을 일으켰다.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삼천리강토에 얼마나 피젖은 울분이 서리서리 엉켜있었던가.

사대와 망국을 숙명으로 감수해야만 했던 인민이였고 렬강들의 흥정의 칼도마우에 올라 란도질당해도 몸부림칠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였다.

세계지도에서 빛마저 잃었던 조선이 오늘은 자위의 핵방패로 호전광들의 무모한 반공화국광기를 걸음마다 처갈기는 불패의 군사강국, 자위의 핵강국이 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다시한번 초토케 다불러댄 우리의 핵탄두폭음은 반제반미대결전에서의 최후의 승리는 바로 정의의 핵보검을 틀어쥔 백두산대국의것이라는것을 긍지높이 선언한 장쾌한 뢰성이다.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환희가 조국강산에 굽이치는 이 시각 핵보유의 대업을 이룩하시여 조선을 떨치신 희세의 천출위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삼가 돌이켜보는 인민의 마음은 뜨겁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세계에 우뚝 내세워주신 대원수님들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최강의 전쟁억제력은 핵이다. 더우기 미제의 항시적인 핵위협속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핵보유, 핵억제력의 보유는 민족만대의 번영과 안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대국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워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억년담보를 마련해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중에서도 가장 큰 업적이다.

핵보유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김정일동지!

날강도 미제의 핵위협이 극한점에 이르러 조국앞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제의 책동에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대처해나갈 원칙적립장을 밝히시였다.

자주성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경제발전수준에 있는것이 아니라 군력 다시말하여 군사적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는것이다. …

세계의 주목을 끈 20세기 90년대와 새 세기 10여년간을 헤쳐보라.

1991년 12월 이전 쏘련의 해체와 함께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오래동안 바라오던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기회》가 왔다고 떠벌인 미국은 침략전쟁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제국주의세력의 횡포무도한 책동앞에서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조차 움츠러들었다.

미국은 그때 조선을 없애는것은 시간문제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핵위협공갈이 시작되였다.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의 한 고리로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 나라에 대한 《핵사찰》공간을 악용하기 시작하였다. 중지하였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한 미국은 그 무슨 제재를 운운하였다. 쏘미대결구도로부터 조미대결구도로 세계정치구도가 달라졌다. 이것은 방대한 핵무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이였다. 이 대결에서의 후퇴는 곧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사멸을 의미하였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앞에 드리운 먹장구름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2(1993)년 3월 8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뒤이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것을 선언하도록 하시였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우리 나라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던 력사의 그 나날을.

적지 않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싶어도 핵렬강들의 압력이 두렵고 핵문제가 정치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단을 요하는 문제인것으로 하여 핵보유를 엄두내지 못하고있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타협이나 구걸이 아니라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맞서싸우려는 주체조선의 의지를 세계앞에 보여주시였다.

철두철미 핵대국들의 리익만을 담보하는 불공평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의 존엄높은 시위였고 무진막강한 힘을 과시한 특대사변이였다.

공화국의 단호한 립장에 넋을 잃은 미국은 대화마당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미기본합의문과 그것을 성실히 리행하겠다는 미국대통령의 전례없는 담보서한의 발표가 세계정치계에 던진 충격파는 참으로 컸다.

미국이 핵무기로 위협하면 할수록 조선인민의 타격력도 더 강해진다는것, 이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마련하신 조선의 정치력학이라고 한것은 서방의 한 인사의 격찬만이 아니였다.

《지구상의 모든 핵폭탄을 다 터쳐도 공화국의 이번 성명보다 위력하지 못할것이다.》, 《조선의 결정은 미행정부를 쇼크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

어디 그뿐인가.

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탈퇴, 그 이후에 진행된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회담과 그 리행을 위한 주요협상들, 효력을 림시정지시켰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완전탈퇴와 6자회담진행 등은 위대한 장군님의 결단과 의지, 령활무쌍한 전략과 지략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미핵대결전에서의 우리 인민, 우리 공화국의 승리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핵위협은 새 세기에 들어와 한층 더 강화되였다.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우리 공화국을 공개적으로 올려놓은 미국은 이라크 다음목표는 조선이 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벌려놓은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로골적인 핵위협공갈이였다.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었다.

세계가 불안과 우려를 안고 조선반도에 초점을 모으고있던 엄혹한 시기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것도 가질수 있다는 우리의 정당한 립장을 표명하도록 하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담력과 배짱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미국의 가중되는 핵위협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원쑤들이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초강경의 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맞받아나가시였다.

핵보유,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핵은 바란다고 해서, 또 경제기술적토대가 그쯘하다고 해서 어느 나라나 가질수 있는것이 아니다.

력사의 갈피를 번져보느라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핵이 없으면 얻어맞고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공평한 세계질서에서 벗어나보려고 핵보유를 시도하였지만 그것은 핵을 가진 렬강들의 제재몽둥이에 의해 감히 실현할수 없는 꿈으로만 되여왔다. 핵무기의 사슬로 행성을 칭칭 휘감아놓고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핵몽둥이를 휘두르는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과 공갈은 극도로 횡포한것이였다.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공화국이 핵보유선언과 핵시험에 관한 단호한 립장을 표명하였을 때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지배세력은 물론 핵을 보유하고있는 여러 나라들이 우리가 핵을 가지는것을 반대해나섰다. 핵렬강들의 압력에 조선이 과연 어떻게 나올것인가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위구심을 나타내였다.

바로 그러한 때 세계는 희세의 선군령장이 안아온 신화적인 기적을 목격하였다. 우리의 핵무기보유를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핵렬강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끈질긴 방해책동과 악랄한 제재를 가할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핵시험의 성공으로 온 행성을 진감시키시였다.

주체95(2006)년 10월 9일은 민족의 운명, 우리 조국의 지위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 력사의 날이였으니 그날 제1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온 나라가 환희에 휩싸여있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지하핵시험에서의 성공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이며 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서고있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힘있게 시위한 장거라고.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앞에 력사의 만단사연이 눈물겹게 어려왔다.

어느해인가 국방력강화를 위한 문건에 수표를 하시던 우리 장군님 인민들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때에 이런 결심을 내리자니 정말 가슴이 아파 견딜수 없다고, 이런 때가 제일 괴롭다고 하시였다.

아픈 마음을 달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터치시였다.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에게 다 이야기해주자고, 인민들은 왜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에 대하여 다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우리 정녕 다 알고있었던가.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 헤쳐오신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이 몇천몇만리였던가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의 길, 국방력강화의 길이 강력한 핵보유국에로 이어진 길이였음을 그때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언제나 그이의 선군길을 따라 걸은 우리 군대와 인민도 다 알지 못하였고 세계는 더우기 알수 없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이 떳떳하고 존엄있게 살아나갈수 있게 하시였으며 조선을 많은 대국들이 소홀히 할수 없는 동북아시아안정의 관건적인 고리로 되게 하시였다.》고 한 외국신문의 보도, 《북조선은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완강히 도전할수 있는 군사적실체, 미국이 주도하는 새 세기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돌파구를 낼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한 미국 죠지타운종합대학 박사의 고백,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치의 특징이 군사력과 외교교섭을 갈라서 생각한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시위하여 상대방을 심사숙고하게 하고 동시에 외교교섭을 병행하여 조선반도를 무대로 하는 국제관계를 조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신데 있다고 한 자본주의나라 인사의 분석 등은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에 대한 온 행성의 객관적인 인식이였다.

주체95(2006)년 10월에 이어 주체98(2009)년 5월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제2차 지하핵시험은 또 얼마나 가슴후련하였던가.

적들의 횡포무도한 위협과 공갈, 제재와 압력을 비웃으며 이 땅에서 핵뢰성은 울려퍼졌다.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는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의미하는것이였다.

적대세력들까지도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작용하고있는것은 미국의 억제력이 아니라 조선의 억제력이며 조선은 미국의 핵공격에 충분히 대처할수 있다고 인정했듯이 우리의 강력한 군사적힘, 핵억제력은 미국의 침략적이며 지배주의적인 야심을 완전히 전제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년대와 년대를 이어 더욱 빛나고있다.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우리 조국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존엄있는 나라로 되게 하실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신다.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악착하게 달려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정의의 핵보검으로 휘어잡아 발밑에 놀려뒤고서신 강철의 령장!

사랑하는 인민에게 하고싶었던 위대한 장군님의 하많은 이야기를 천만군민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며 심장으로 다 듣고있다.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과적단행,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최종병기》, 《보이지 않는 핵주먹》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체탄, 통일탄인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완전성공과 실전화된 위력한 핵탄두폭발시험성공 …

적들이 이번만은 다를것이라고 했던 《제재결의》 2270호가 휴지장이 되고말았다.

세계를 깜짝 놀래운 거대한 분출이 조선을 일약 세계의 군사대국, 동방의 핵강국으로 떠오르게 하였고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힘의 구도를 세워놓았다.

5천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번영기를 조국은 맞이하고있다.

백두산대국이 세계앞에 무한대의 힘을 과시하고있다.

우리가 강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잡것들의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을 자강력제일주의의 무쇠마치로 끊어버리고 자연재해가 안아온 화는 큰 복으로 전환시키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만리마속도를 창조해가는 동방의 핵강국을 세계가 우러러본다.

강력한 자위적핵무력을 마련해주시어 이 땅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원쑤들과의 포성없는 전쟁에서 련전련승하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해주신 불세출의 위인,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동지!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위대한 태양의 나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은 무궁강대하리라.

본사기자 리금분
본사기자 강원남

당중앙의 불빛을 안고 살자

◇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우리 당의 은정어린 사랑은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무산군의 한 일군은 《지금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과 전체 복구자들이 북변땅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치렬한 접사전을 벌리고있다. 온 나라 인민들이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더 많은 설비와 자재, 지원물자들을 보내주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다.

그런데 당에서 또다시 피해지역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학교와 유치원부터 먼저 세우도록 하고 이 지역 인민들모두에게 한날한시에 많은 물고기를 보내주었으니 어찌 북변땅이 감격과 격정으로 끓어번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적시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한사람도 빠짐없이 물고기가 가닿게 되였을 때 북변땅에는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울음바다가 펼쳐졌고 감동없이는 들을수 없는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퍼졌다. 어느 나라에서나 대재앙을 입은 지역에서는 비애와 상실의 탄식소리가 울려나오는것이 례상사로 되여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의 북부지역에서는 로동당만세소리가 연방 터져나오고있으니 이것은 인민을 위해서는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천만군민의 심장의 분출이다.

◇ 우리 당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장 어려운 때 안다고 하였다. 순탄할 때에는 누구나 사랑에 대하여 말할수 있다. 하지만 고난을 겪을 때 가식은 변심으로 흩어지는 법이다. 시련이 밀려들 때 더 열렬히, 더 극진히 위해주는 사랑이 가장 진실한 사랑이다.

우리 당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고있다. 이것은 온 나라의 매 사람, 매 가정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우리 당만이 베풀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인민사랑이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이 천만군민의 심장을 울린 때로부터 보름도 안되는 사이에 우리 당은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하여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펼치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그 어느때보다 더 절절하고 뜨겁게 우리 당의 인민사랑을 절감하고있으며 당의 품이 있기에 어떤 재난도, 어떤 난관도 두렵지 않다는 억척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있다.

◇ 지금도 당중앙의 불빛은 인민사랑의 뜨거운 정을 안고 온 나라를 비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만국사중에서도 제일먼저 피해지역 인민들의 소식을 알아보시고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고계신다.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과 살림집건설정형, 복구자재생산실태와 수송형편으로부터 교과서공급과 학습장생산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헤아려보시며 끊임없는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사랑과 은정에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격정을 금치 못하며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의 불빛을 심장에 안고 살자, 이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눈물겹게 체험한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신념의 웨침이다. 이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북부전역에서 선군조선의 영웅신화를 또다시 창조할것이다. 북변땅에서 련일 터져나오는 로동당만세의 선창은 위대한 혼연일체의 격류속에 사회주의만세의 대합창으로 온 나라에 더욱 우렁차게 울려퍼질것이다.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해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길에 꽃핀 이야기

명답중의 명답

《주석님, 주석부곁에 큰 대학을 두고 마음이 놓이십니까?》

이것은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한 나라의 민족보위상이 금수산기슭과 잇닿은 룡남산언덕에 높이 솟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보고 놀라와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드린 물음이였다.

청년들이 제일 큰 골치거리로, 청년문제가 도저히 해결불가능한 난문제로 제기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들에 대한 경계심을 한시도 늦추지 못하고 일해오는 그로서는 도저히 리해되지 않는 문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석에서 그의 물음에 명쾌한 대답을 주시였다.

나는 대학생들이 옆에 있어서 더욱 마음을 놓는다. 우리 대학생들은 평상시에는 과학을 탐구하고 유사시에는 총으로 우리 당을 받드는 믿음직한 혁명의 계승자들이다. 그들에 대한 나의 믿음은 확고하다. …

우리 학생청년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이 어려있는 명답중의 명답이였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는 경탄과 부러움에 넘쳐 이 말을 곱씹었다. 하지만 그도 언제나 청년대학생들을 마음속 가까이에 두시고 과학과 기술을 알기 전에 당과 조국을 알게 하고 혁명의 참뜻도 가르쳐주시며 열렬한 애국자, 혁명가로 키워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세계를 다는 알수 없었다.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어느해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의 일이다.

이국의 산과 들이 그이께서 타신 렬차의 차창밖으로 지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차창밖을 내다보시다가 일군들에게 왜서인지 조국땅이 멀어질수록 우리 청년들이 더 보고싶다고 하시였다. 강추위속에서 발전소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아글타글하고있을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모습을 그려보시며 그들에게 새 솜옷을 보내주자고, 눈때문에 길이 막혔을수도 있고 늦어질수도 있으니 비행기로 보내주자고 정을 담아 이르시였다. 참으로 눈물없이는 받아안을수 없는 가슴뜨거운 교시였다.

며칠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소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시는 솜옷을 싣고 비행기가 하늘높이 날았다. 비행기가 나타나자 청년돌격대원들은 붉은기를 세차게 흔들며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치였다. 위대한 어버이의 다심한 은정이 어린 솜옷을 받아안으며 청년돌격대원들은 얼마나 크나큰 격정과 흥분으로 가슴끓이였던가.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으로 눈물을 머금었다.

외국방문의 길에서조차 청년들을 잊지 않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의 청년들은 피끓는 청춘의 기백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격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갈수 있었던것이다.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가 되라

지난해 5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위해 몸소 촬영장에 나오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뜨겁게 어려온다.

못 잊을 그날 기념사진촬영에 앞서 그이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지극한 충정,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결한 의리심, 아름다운 도덕기풍을 발양하는데서 특출한 모범을 보인 여러명의 대회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소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어주시면서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대회참가자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미풍은 진주보석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청년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가 되여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은 또 얼마나 모두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던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정과 열을 다하여 따뜻이 품어주고 내세워주신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을 숭고한 미덕의 소유자,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들로 키워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그것은 오늘 우리 조국이 천하무적의 청년대군, 미풍선구자들의 대부대를 가진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그 존엄과 위용을 떨칠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남

값높은 평가, 고귀한 칭호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을 가장 믿음직한 선군혁명동지로 여기시며 열화같은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시였다.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찾아가시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군인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는 끝이 없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총잡은 군인들을 단순히 최고사령관의 전사라는 군직관계에서가 아니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보고 그들을 끝없이 사랑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어느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여도 군인들의 훈련모습을 친히 보아주시면서 못내 대견해하시고 군인들의 정치사상교양사업과 문화정서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리고 병사들을 만나시여서는 친어버이심정으로 고향은 어디이고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군사복무가 힘들지 않는가고 다정히 물어도 보시였으며 총과 함께 보내는 병사시절보다 더 아름답고 값높은 시절은 없다고 하시면서 고무도 해주시였다.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구름도 오르기를 저어하는 해발 1 000m가 넘는 전선동부의 고지들은 하나같이 높고 험하기로 유명하다.

주체94(2005)년 11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부산악지대에서도 높고 험하기로 소문난 최전연고지를 찾아 떠나려 하시였다.

맵짠 추위를 예고하며 사나운 바람이 무섭게 몰아쳤다.

일군들의 간절한 청도 사나운 날씨에 병사들을 찾아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걸음은 막지 못하였다.

그 고지우에 설사 단 한명의 병사가 있다고 하여도 최고사령관은 무조건 찾아가야 한다는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불태우시며 고지로 오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앞길을 그 누가 막을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래가 아니라 돌마저 날려갈 그야말로 폭풍같은 바람속을 헤치시며 드디여 고지에 오르시였다.

험하디험한 자기들의 초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지휘관들은 격정에 목메여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반갑게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 날씨가 보통 사납지 않다고, 여기 날씨가 계속 이렇게 사나운가고 은연히 물으시였다.

원래 이 고지는 해발고가 매우 높다나니 날씨가 좋을 때보다 나쁜 날이 더 많은데 오늘은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 더 사납다고 한 일군이 대답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시더니 최전연고지 구분대군인들의 생활이 념려되시는듯 연연히 뻗어나간 우중충한 산발들을 바라보시였다.

1211고지며 오성산…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얼마나 많은 우리 병사들이 최전연의 유명무명의 고지들에서 성스러운 복무의 나날을 보내며 자기의 청춘을 바쳐가고있는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국의 눈과 귀가 되고 성새, 방패가 되여 묵묵히 나라의 안녕을 지켜가는 전연장병들의 그 수고를 생각하시며 걸음을 옮겨 전방지휘소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다시금 날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시며 이윽토록 남쪽하늘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인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이렇게 높고 험한 고지에서 군사복무를 하고있다고, 정말 우리 군인들이 용하고, 바람세찬 최전연고지에서 누가 보건말건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시절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는 전초병들은 모두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참된 애국자!

더없이 성스럽고 고귀한 이 값높은 칭호는 최전연병사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지 않고서는 안겨줄수 없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성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를 묵묵히 바쳐가는 인민군전사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아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이처럼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는것이 아닌가.

어찌 이뿐이랴.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 가장 가까이에는 언제나 병사들이 있었다.

여름이면 무더위속에 근무를 서는 초소병사들의 수고를 남먼저 헤아리시고 겨울이면 고지의 전사들이 감기에 걸릴세라 걱정하시며 명절이면 명절대로 군인들이 어떻게 명절을 쇠고있겠는가를 두고 마음쓰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은 단순한 전선시찰의 길이 아니였다. 그길은 사랑하는 병사들을 찾아가시고 병사들과 뜻과 정을 함께 나누신 병사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길이였다.

본사기자 김철혁

룡남산의 영원한 메아리—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의 제일생명

창립 70돐을 맞이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긍지높은 행로를 더듬어

10월 1일, 이날은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뜻깊은 날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이 창립 70돐을 긍지높이 맞이하고있다.

새 조선의 첫 기슭에서 우렁찬 고고성을 터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년동안 김일성종합대학은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길에 참으로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리였다. 그 하나하나의 공적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품들여 키워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룡남산아들딸들의 애국충정의 넋이 세차게 맥동치고있다.

세상에 대학은 많아도 우리의 김일성종합대학처럼 민족의 자랑, 혁명의 자랑으로 대를 이어 그 이름 빛나는 성스러운 배움의 전당은 없다.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자기의 본태를 추호도 잃지 않는 김일성종합대학, 세기를 이어 빛나는 그 높은 존엄과 긍지는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둔것인가.

우리는 김일성종합대학이 새겨온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과 의리로 불타는 70년 행로에서 그 대답을 찾게 된다.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수령님의 대학

대학의 명칭은 그 대학의 사명과 목적, 력사와 전통을 말해주는 얼굴과도 같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류가 흠모하여마지 않는 위대한 태양의 존함을 높이 모신 바로 여기에 김일성종합대학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수령의 대학, 당의 대학, 인민의 대학으로 존엄떨쳐온 남다른 비결이 있고 가장 큰 긍지와 자부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의 빛나는 전통으로 되고있습니다.》

감회도 깊은 주체35(1946)년 7월 8일, 이날에 채택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본 종합대학에 조선해방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투쟁한 조선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의 이름을 부여하여 〈김일성대학〉이라 칭함》

김일성종합대학은 우리 인민이 해방후 새 조선의 탄생과 함께 처음으로 일떠세운 민족간부육성의 원종장이다. 그처럼 의의깊은 배움의 전당에 어이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삼가 모시였던가.

여기에 우리 수령님을 떠나 그 창립도 강화발전도 생각할수 없는 김일성종합대학의 뜻깊은 력사가 뚜렷이 비껴있다.

수십성상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앞에 또다시 나섰던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인 위업, 그속에는 민족간부육성의 초행길도 있었다.

일제의 악착한 민족우매화정책과 식민지노예교육의 후과로 하여 단 한개의 대학도 없었던 북조선의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선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민족인재를 자체의 힘으로 키워낼 웅지를 굳히시였으며 해방후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종합대학창립과 관련한 준비사업을 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대학을 관리운영해본 경험도, 대학창립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도 없는 빈터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단과대학도 아닌 종합대학부터 먼저 창립한다는것은 세계대학건설력사에 전례가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혁명과 건설에서 교조가 아니라 언제나 주체를 확고히 견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인재육성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민족간부들을 동시에 양성할수 있는 종합대학창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대담하고 독창적인 구상을 내놓으시고 《시기상조》를 운운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의 궤변을 단호히 쳐갈기시며 몸소 종합대학창립준비위원회를 무어주시고 대학창립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당시 대학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였던 교수진영의 확보를 위해 자신께서 친히 수표하신 위촉장을 방방곡곡에 흩어져있는 지식인들에게 보내주신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종합대학창립을 위해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에 대해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처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대학창립준비사업은 불과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결속되였으며 주체35(1946)년 10월 1일, 드디여 신생조선의 첫 종합대학이 자기의 우렁찬 고고성을 터치며 탄생하는 세기적사변이 일어났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자랑스러운 자기의 첫 대학에 만고의 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우리 수령님의 존함을 삼가 모시였다. 이 땅을 영원히 수령님의 나라, 김일성장군님의 애국의 뜻과 구상이 꽃펴나는 인민의 락원으로 건설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대학의 아들딸들이 불간이 되고 핵심이 되기를 바라는 인민의 절절한 기대가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대학명칭에 천만근의 무게로 실려있었다.

조국과 인민의 그처럼 크나큰 기대와 숙원속에 창립된 김일성종합대학은 자기 연혁의 첫 갈피에서부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산모범을 긍지높이 새겨왔다.

대학창립후 처음으로 진행된 주체36(1947)년 5.1절기념 군중시위에 참가한 교원, 학생들이 선두대렬에서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 만세!》라는 글발을 정중히 새긴 구호판을 들고 보무당당히 광장을 행진해나간 사실과 대학창립 1돐기념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뜻밖의 정황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한목숨바쳐 구원하고 희생된 박한서학생의 충실성의 산모범을 비롯하여 룡남산의 아들딸들이 수놓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과 의리의 화폭들은 수없이 많다.

참된 신념은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모진 시련앞에서도 동요를 모른다.

조국의 운명을 피로써 사수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당과 수령을 위한 앞장에서 웅위한 신념과 의리의 대오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당당히 서있었다.

수천명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전선으로 탄원, 졸업생들 대다수가 정치공작대로 공화국남반부에 파견, 전쟁전기간 여러명의 공화국영웅을 비롯하여 무려 2,000여명의 국가수훈자 배출.

이 몇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포화의 불구름속에서도 당과 수령만을 변심없이 받들고 따른 룡남산아들딸들의 불타는 심장의 열도를 력력히 새길수 있다.

인류력사에는 크고작은 전쟁들이 수많이 기록되여있다. 그러나 조국의 운명이 판가름되는 준엄한 시기에 나라의 최고대학의 학생들 거의 모두가 침략자들과의 판가리결사전에 참전하여 무비의 용맹을 떨친 례는 찾아볼수 없다. 이것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위대한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의 존함을 높이 모신 김일성종합대학의 학생들만이 발휘할수 있은 애국적장거였다.

하다면 과연 무엇이 어제날 천대받고 억눌리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그처럼 굴함없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자라나게 한것이였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이였다.

조국강산이 불구름에 잠겼던 그때에도 대학졸업식을 예정된 날자에 하도록 해주시고 졸업생들에게 자신의 영상사진을 보내주신 우리 수령님, 전쟁이 가렬하던 그때에 싸우는 고지의 병사들을 대학으로 소환하여 학업을 계속하도록 하여주신 수령님의 강철의 담력과 배짱은 그이의 존함으로 빛나는 룡남산아들딸들의 심장마다에 충정과 의리의 넋이 피방울마냥 더욱 뜨겁게 고동치게 한 비결이였고 영웅적힘의 원천이였다.

우리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룡남산아들딸들의 혈연의 관계를 말해주는 하나의 이야기를 더 전하려고 한다. 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1(1952)년 4월이였다. 어이 알았으랴. 조국의 존엄과 운명수호의 판가리결전을 진두지휘하시는 우리 수령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던 백송리를 찾아주실줄이야.

《학습도 전투이다!》라는 구호를 방마다 써붙이고 화선병사의 자세로 학업에 분투하던 대학생들은 격정의 대하되여 설레였다. 바로 그날 한 학생이 탄생 40돐을 앞두신 어버이수령님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헌시 《수령님께 드리는 노래》를 삼가 올려드리였다.

포화의 불구름을 헤치며 랑랑히 메아리쳐간 그날의 헌시, 10여년세월이 흐른 뒤 열화같은 수령송가가 시줄마다 고동치는 그 시를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헌시에 수령님을 맞이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기쁨과 충성의 결의가 잘 표현되였다고 특히 《김일성장군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빛내리라》고 한 표현이 아주 좋다는 과분한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우리 수령님들과 룡남산아들딸들의 혈연의 력사는 이렇게 년대와 세기를 넘으며 뜨겁게 이어져왔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이 낳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속에는 우리 조국과 혁명의 자랑인 비전향장기수들도 있다.

손성모, 김용수, 오형식, 우용각, 박문재.

홍안의 시절에 교문을 나섰던 제자들이 머리에 백발을 이고 신념과 의지의 강자가 되여 다시 룡남산의 품에 안길 때 그들이 심장으로 터친 토로는 무엇이였던가.

《나는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이다》, 이것은 비전향장기수 손성모동지가 쓴 수기의 제목이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대학졸업생, 이 영예, 이 존엄을 지키면 살고 이것을 못 지키면 살아도 죽은것이나 다름없다는 불굴의 신념을 안고 오랜 세월 적들과 굴함없이 싸워 이겼다고 쓴 수기의 글줄들은 그대로 평범한 인간들도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성장하게 하는 룡남산의 참된 넋이 무엇인가를 온 세계가 다 알게 한 힘있는 증명이였다.

세상에 대학은 많아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자기의 피줄기로, 제일생명으로 간직한 대학은 없다. 이것은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시고 그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종합대학만이 간직할수 있는 최상의 긍지이며 자부이다.

하기에 우리 수령님 생전에 지금 우리 간부들은 거의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우리 간부대렬이 튼튼히 꾸려져있기때문에 그 어떤 세계적인 동란에도 끄떡하지 않으며 발편잠을 잔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지 않았던가.

저 하늘에 태양이 영원하듯이 위대한 태양의 존함을 높이 모신 김일성종합대학의 충정과 의리의 생명력도 영원하다. 왜냐하면 오직 그것에만 자기의 값높은 존엄과 긍지가 있고 불변의 생존법칙이 있다는것을 투쟁과 생활의 산진리로 체득한 수령의 대학, 당의 대학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일성종합대학이기때문이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에 떨치리라!

70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의 년륜이다. 이 70년에 세계는 얼마나 몰라보게 변하였는가.

룡남산기슭에도 천지개벽의 정경이 펼쳐졌다. 창립당시 7개의 학부로 구성되였던 대학이 오늘은 7개의 대학과 수십개의 학부, 수백명의 저명한 원사, 교수, 박사들을 포함한 강력한 교원력량을 가진 굴지의 종합대학으로,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으로, 세계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일류급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으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전자도서관과 수영관, 기숙사가 일떠서 그 웅장함을 더욱 눈부시게 채색하고있다. 대학가까이의 룡흥네거리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온 나라의 부러움을 모으며 솟아올랐고 지금은 또 려명거리가 일떠서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사준공식에 참석하신 우리 수령님의 앞가슴에 밤새워 만든 붉은 꽃송이를 삼가 달아드렸던 제1기 졸업생들로부터 어언 69기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되는 대학은 무려 8만여명의 졸업생들을 키워낸 관록있는 대학, 력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으로 명성떨치고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자부는 복잡다단한 세월의 풍파속에서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바통을 변함없이 꿋꿋이 이어왔다는 그것이다.

대학이 걸어온 70년의 력사속에는 지난 세기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류례없는 시련의 시기도 있었다. 반사회주의역풍이 어지럽게 불어치고 적대세력들의 발악이 최고에 달했던 그때 룡남산의 아들딸들은 자기들의 충정과 의리의 력사를 어떻게 지키고 빛내여왔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시련의 나날 룡남산에 더 높이 빛난 이 신념의 글발은 하나의 구호이기 전에 그들의 가슴속에 고동친 심장의 메아리였고 의지의 불길이였다.

밥곽에 쌀밥이 아니라 풀죽을 담아들고서도 단 하루도 교단을 비우지 않았던 교원들, 하루일과를 룡남산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고 그 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았던 교직원, 학생들.

바로 이 나날 대학에서는 주체의 정치경제학, 주체철학, 법학, 력사학, 주체의 문예리론 등 모든 사회과학과목들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과학기술교육을 주체의 사상론, 우리 당정책으로 더욱 철저히 일관시키였으며 우리 식의 우월한 교육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교육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예술영화 《백두의 봇나무》의 원형인 리영옥동무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보천보혁명박물관 구시물동혁명전적지 강사로 자원진출한것도 바로 이때이다.

시련의 광풍도 룡남산아들딸들이 이어가는 신념과 의리의 행군길을 추호도 막지 못하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이는것을 숭고한 의무로 여기고 여러차례에 걸쳐 전국각지의 혁명적구호나무들에 대한 조사측량사업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항일혁명시기 혁명적구호문헌지도첩》을 새로 편찬하는데 적극 이바지한 지구환경과학부의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 수많은 세불길합탐지기를 연구제작하여 탄광들에 보내주어 석탄공업부문 로동계급을 크게 고무한 물리학부와 과학실험기구연구소의 교원, 연구사들과 로동자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밖에 만들지 못하는 현대적인 주사식전자현미경을 훌륭히 연구제작한 대학의 연구집단…

방학이면 자지 탄광들과 발전소들, 협동농장들에 제일먼저 달려나가 고난을 이기는 조국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기 위해 진정을 다 바친 열혈의 인간들도 다름아닌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학생들이였다.

무엇이 이들에게 좋은 때, 좋은 날만이 아니라 어렵고 간고한 시련의 언덕에서도 변함없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과 의리의 한길을 억척같이 걸어갈수 있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것인가.

오늘도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룡남산기슭에서 배움의 꿈을 활짝 꽃피운 수많은 졸업생들의 심장마다에 하나로 고동치는 불굴의 넋, 그것은 바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제일생명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가르치심이다.

여기에 외국의 권위있는 한 인사가 김일성종합대학에 대하여 피력한 소감이 있다.

《대학의 명예는 어떤 스승을 모시고있는가, 학술적권위가 얼마나 높은가에 의해 결정되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김일성종합대학은 특출한 대학으로 된다고 본다. 이 대학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대학이고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이신 대학이다. 확언컨대 대학이 김정일동지를 키운것이 아니라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을 키우신것이다.》

그렇다. 우리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종합대학은 또 한분의 위대한 스승을 모시여 자기의 빛나는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이어온 명실공히 수령님의 대학, 장군님의 대학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의 70년 력사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혈연의 피줄기를 맺은 1960년대초의 수년세월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바로 이 나날과 더불어 룡남산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수령님의 대학, 당의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었으며 천만년 세월의 풍파에도 변함없을 충정과 의리의 넋을 절대불변의 생명으로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개인이 아니다》, 《대학생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반사회주의조류와 수정주의, 기회주의가 배회하던 력사의 먹장구름을 단호히 쳐갈기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룡남산의 하늘가에 울려주신 이 철의 선언들은 그대로 수령의 존함을 높이 모신 김일성종합대학의 생명은 무엇으로 빛나고 계승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신 위대한 스승의 뜻깊은 강의였다.

결코 책자의 글줄로만 가르쳐주신 진리가 아니였다.

《저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대학혁명사적관에 정중히 모셔진 력사적인 화폭—몽소 목교체를 메시고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우러르노라면 대학생들을 글뒤주가 아니라 현실속에서 단련되고 당정책옹위전에 앞장서는 실천가형의 투사들로 키우시기 위해 마음써오신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이 가슴뭉클 안겨온다.

《김일성종합대학이 수령님의 대학으로 되자면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이 존재할수 없습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남산에 새겨주신 이 불변의 철리와 더불어 김일성종합대학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고귀한 전통으로 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수령의 대학, 당의 대학으로 세기를 이어 존엄떨칠수 있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피눈물의 언덕에 쏟고쏟은 룡남산아들딸들의 비분과 오열은 그리도 가슴에이는것이였다.

그러나 태양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조선의 하늘이 변함없이 맑고 푸른것은 그 하늘에 오늘도 위대한 태양이 빛나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동지들을 굳게 믿습니다.

나는 동지들의 사업에서 더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 정 은

2012. 4. 27》

피눈물의 언덕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이처럼 뜻깊은 친필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룡남산의 아들딸들이 미더웁게 간직되여있었다.

참으로 얼마나 뜻깊은 사연들로 수놓아진 룡남산의 10월이던가.

주체102(2013)년, 대학창립 67돐을 맞는 그해의 10월에는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의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여 룡남산마루에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여주시고 당창건기념일을 하루 앞둔 날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시며 대학의 공로있는 교원, 연구사들과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보라!》,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서 눈물속에 터친 이 장시의 글줄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룡남산아들딸들의 하늘끝에 닿은 자부와 긍지의 우렁찬 토로였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고 어머니 우리 당이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당의 사랑과 배려를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 당을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원수님께서 하신 이 뜻깊은 말씀이 금언으로 새겨져있다.

우리 당을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이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이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언덕에서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어떻게 수행해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신 자애로운 스승의 간곡한 가르치심이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며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자!

이런 신념과 의지가 온 대학에 차넘치고있다.

당과 수령이 안겨준 사랑과 믿음의 첫자리를 보답과 의리의 첫자리로 빛내이는것, 이것이 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우리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더 잘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에 마땅히 룡남산아들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하면서 전혀 경험도 없는 생소하고 어려운 첨단개척의 길을 끝까지 돌파하여 수령영생위업실현에 크게 기여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감동깊은가.

인재들에 의해 모든것이 결정되는 오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세계를 앞서나가는 최첨단돌파전의 승리에 있다는것을 뼈속깊이 새기고 우주론, 나노비선형광학, 량자정보학, 리만분광학, 대수학, 게놈배렬해석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미해명문제들을 련이어 해결하여 나라의 종합적과학기술력을 만방에 과시한 교원, 연구사들의 자랑 참으로 긍지높다.

지난해 11월 국제대학생프로그람경연 아시아지역예선경연에 출전하여 2개의 금상과 2개의 속도상, 우승컵을 쟁취한 대학의 학생들이 지난 5월에는 제40차 국제대학생프로그람경연 결승경연에 참가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수령님의 존함을 높이 모신 대학의 영예를 다시한번 만방에 떨친 사실은 새길수록 흐뭇하다.

그뿐이 아니다.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지난해에 현대통신기술의 종합체라고 할수 있는 첨단체신설비인 수자식중심교환기(쏘프트교환기)를 우리의 힘과 지혜,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우리 식의 첨단제품을 만들어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발명가메달과 증서를 수여받는 자랑을 떨친것을 비롯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그 기세를 늦춤이 없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 대학창립 70돐을 맞이하는 올해를 또다시 년초부터 전례없는 위훈으로 빛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를 선전하는 도서들의 집필이 성과적으로 완료되고 《백두산절세위인들과 룡남산의 지식인들》을 비롯한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 기념도서들이 수십종이나 집필출판되였으며 도이췰란드어—조선어기계번역프로그람 《만리마》를 개발하여 과학기술전당에 도입한데 이어 중요민족고전 《증보문헌비고》의 번역편찬사업을 결속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수십개의 학술형인재와 실천형인재양성학과들에 대한 과정안이 완성되여 강의를 시작하였으며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받들고 원격대학 학생수를 수천명으로 늘인것을 비롯하여 대학이 거둔 성과는 참으로 크다.

그 하나하나의 성과들은 무엇으로 하여 그처럼 긍지높은가. 그것은 바로 당과 수령에 대한 변함없는 충실성이 뿌리가 되여 안아올린 충정과 의리의 알찬 열매들이기때문이다.

걸어온 70년의 자욱을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갈 래일을 신심드높이 내다보는 이 시각 룡남산아들딸들의 심장마다에 고동치는 억척의 신념과 의지는 무엇인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의 제일생명이다!

룡남산은 어제도 오늘도 이 신념으로 고동치고 이 불변의 항로우에 굳건히 서있다. 이것이야말로 지구상의 그 어느 하늘아래서도 찾아볼수 없는 룡남산의 넋이고 정신이며 그 영원무궁한 빛발의 광원인것이다.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그날을 마중하며, 위대한 당,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게 할 최후승리의 날을 힘껏 앞당기며 룡남산의 아들딸들은 자기들의 넋이고 생명인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바통을 더욱 억세게 이어갈것이다. 그 성스러운 충정과 의리의 행로우에 자랑찬 70년의 년륜을 새긴 김일성종합대학이라는 고귀한 부름이 700년, 7,000년을 이으며 길이 빛나리라는것을 조국과 인민은 굳게 믿는다.

본사기자 강진형
본사기자 김명훈

당의 령도따라 신심과 활력에 넘쳐 세계일류급대학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

국제학술토론회 진행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 국제학술토론회가 9월 29일과 30일에 진행되였다.

《과학발전과 사회적진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인류의 사회적진보에 이바지할 학술적으로 가치있고 실천적의의가 있는 수백건의 과학기술론문들이 발표되였다.

토론회개막식이 29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있었다.

개막식에는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형철, 대학의 일군, 교원, 연구사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 연구기관, 단체의 대표단, 대표들, 총련 조선대학교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형철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 국제학술토론회를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인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들과 저명한 교수, 학자들에게 사의를 표하였다.

토론회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사회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바쳐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활발히 하기 위한 방도들을 협의하게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김일성종합대학과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 연구기관, 단체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두터이 하고 학술교류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토론회개막을 선언하였다.

김승두위원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시기에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리게 된것은 뜻깊은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토론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인류과학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여온 우리의 과학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주체의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인류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적진보에 이바지하는 이번 토론회가 참가자들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이어 신기 중국국제우호련락회 부회장과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의 축하발언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창립 70돐을 맞이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학생, 졸업생들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정력적인 령도아래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여온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학생들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여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건설에 이바지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는 사회정치학, 경제 및 금융학, 문학, 력사학, 언어학, 수학, 물리학, 생명 및 환경과학 분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문명강국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병진로선이 가지는 력사적인 중요성과 경제적혜택》, 《수학적방법을 리용한 경제발전의 전략적목표설정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성을 형상한 시가문학의 특징》, 《김일성민족의 100년사가 확증해준 철의 진리》, 《청암동토성에서 발굴된 고구려건축지와 전돌벽화》,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우리 말의 우수성》, 《곡면 및 특끌에서 증기의 평면응축》, 《반환에서 덥기합동관계》, 《되튐우주모형에서 암흑물질의 형성에 대한 연구》, 《대장균피라제유전자의 클론화와 발현, 효소학적특성에 대한 연구》, 《건강에 좋은 강냉이풀가루영양에에 대한 연구》 등의 론문들에서 토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학술적성과들을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30일 토론회가 페막되였다.

페막식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국제학술토론회는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 연구기관, 단체들사이의 학술교류와 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토론회기간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국제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

경축공연 진행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교직원, 학생들의 경축공연이 9월 30일에 진행되였다.

공연장소인 4.25문화회관은 대학의 창립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학을 영원한 수령의 대학으로, 세계일류급대학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정으로 끝없이 설레이고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김수길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 당, 정권기관, 내각, 성, 중앙기관, 평양시안의 대학일군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 총련 조선대학교대표단과 해외동포들, 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외국류학생, 연구생, 실습생들이 공연을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실화와 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시와 이야기 《수령님과 장군님의 대학입니다》, 대화시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 녀성중창 《친근한 우리 원수님》, 재담 《우리의 모습》, 남성독창 《운명의 손길》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인민의 첫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을 민족간부육성의 중심기지로,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친어버이의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사회주의교육발전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며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핵심, 전위투사들을 수많이 키워낸 대학의 자랑스러운 70년력사를 감회깊이 되새기였다.

당이 안겨준 직업적인 혁명가, 첨단돌파전의 기수의 영예를 빛내이며 일편단심 충정의 한길,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대학의 박사들이 부르는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의 노래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합창련곡 《배우자》, 《돌파하라 최첨단을》, 재담 《인재》 등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남산마루에서 다지신 력사의 맹세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신심과 활력에 넘쳐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려 주체혁명의 최후승리의 날을 앞당겨나갈 청년대학생들의 드높은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당중앙결사옹위의 제일초병이 되여 당의 위업, 수령의 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교직원, 학생들의 불타는 열의가 이야기와 목제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선동시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였다》에서 세차게 분출되였다.

시와 합창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 《천리라도 만리라도》로 끝난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 경축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나가는 주체조선의 유능한 인재, 선군혁명의 핵심골간으로 튼튼히 준비하며 수령의 대학으로서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여나갈 대학교직원, 학생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김형직사범대학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김형직사범대학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9월 3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김형직사범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최태복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김형직사범대학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태여나고 자라난 우리 나라 사범교육의 모체대학이며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는 교육인재양성의 최고전당, 교육과학연구의 종합적거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10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과 함께 나라의 첫 사범교육기관을 창립하여주시고 여러차례 대학을 찾으시여 교육자들을 키워내는 원종장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는 손수 대학현판을 써주시면서 대대손손 길이 전할 고귀한 유훈을 남기시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의 명칭을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탁월한 교육활동가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도록 해주시고 수십차례에 걸쳐 현대적인 교육설비와 기자재, 희귀한 동식물표본들을 보내주시였으며 선군혁명령도의 강행군길에서 대학예술소조공연을 친히 보아주시면서 대학을 손색없이 잘 꾸리도록 인민군대의 정예부대를 파견하여주시는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김형직사범대학의 자랑스러운 70년 연혁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관록있는 교육과학력량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고 사회주의교육제제와 당의 교육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교원혁명가의 대부대, 유능한 혁명인재들을 배출한 빛나는 공적이 새겨져있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대학의 교원들과 일군들이 교육내용, 교수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지적창재력과 응용능력을 최대한 계발시키는데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교육과학의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하고 전국적범위에서 교육과학자료봉사와 원격교육을 실시하여 현직대학교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 기여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대학의 청년학생들이 당이 제시한 학습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학부별, 학급별학습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으며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교육자후비답게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보이고 최전연섬마을분교에 자원진출한것을 비롯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전위들의 훌륭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남김없이 떨치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한생을 혁명인재양성과 주체교육발전에 일심전력하여온 김형직사범대학 교직원들과 새 세기 교육혁명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교육인재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는 대학생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김형직사범대학 총장 변규순의 기념보고에 이어 부총장 김창남, 강좌장 김광일, 학생 한정범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창립 70돐을 맞으며 받아안은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원의 사상을 대를 이어 꽃피우기 위한 교수교양과 학습,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이 사회주의교육의 본태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교육내용을 심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며 대학을 교원양성부문의 학술, 정보, 자료봉사, 원격교육중심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원들이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높은 과학리론적, 교수실무적자질을 갖추며 청년대학생들은 학습열풍을 일으켜 앞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역군들을 키우는 유능한 교육인재로 준비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김철주사범대학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김철주사범대학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9월 30일에 진행되였다.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수길동지와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철주사범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수길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김철주사범대학은 혁명의 수도 평양시의 중등일반교육과 청소년교양 등을 맡아할 직업적인 혁명가들을 키워내는 믿음직한 원종장, 교원양성기지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5(1946)년 10월 1일 새 조선의 교육자들을 키워내는 나라의 첫 사범교육기관을 창립하여주시고 주체36(1947)년 11월 2일에는 몸소 대학을 찾으시여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교육제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후대교육사업을 나라의 제일가는 중대사로 내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교원대렬을 잘 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교수교양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으며 대학을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도록 해주시고 대학을 중등교육의 원종장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김철주사범대학이 창립후 70년간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교육과학력량과 물질기술적토대를 그쯘히 갖춘 교원후비양성기지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대학의 교원들과 일군들이 사회주의교육의 본태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당당히 세계를 앞서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실시에 따르는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된 교수안들을 새로 작성하고 교수방법을 대담하게 혁신하여 대학생들이 교육자적자질과 풍모를 원만히 갖추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대학의 교원들이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뿌리로 한생을 빛내이려는 자각을 안고 피타는 탐구와 열정으로 가치있는 교육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과학리론적, 교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전국적인 교수경연에서 20여차례의 우승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대학의 미더운 청년전위들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보위하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전구들에 집단탄원하였으며 야간지원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우리 시대 청년대학생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혁명적풍모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김철주사범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사회주의교육제제와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으며 새 세기 교육혁명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교육인재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김철주사범대학 학장 주정실의 기념보고에 이어 부학장 한영찬, 학부장 주원길, 학생 김영미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대학창립 70돐을 맞으며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모든 교직원, 학생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총궐기, 총매진하여 교수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유능한 교육인재, 직업적인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 국제학술토론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 국제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물을 참관하였다.

뽈스까 그단스크종합대학 교수 마르첼리 부르뎰스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는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다. 방문을 통하여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생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만경대일가분들은 조국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분들이시다.

로씨야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대표단 성원 왈레리 수히닌은 유서깊은 고향집을 찾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군 한다고 하면서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나라찾을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는 그이의 혁명력사를 길이 전하는 뜻깊은 곳이라고 말하였다.

한시도 미룰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온 나라의 관심속에 피해지역 학교들에 최상의 교육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여러 단위들에서 피해지역 학생들을 위해 수십만권의 학습장과 많은 량의 수첩 등을 짧은 기간에 생산하여 보내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후대교육사업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 어떤 조건에서도 후대교육사업은 한시도 미룰수 없다는것이 우리 당의 드팀없는 교육중시, 후대중시사상이다.

출판지도국에서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높이 받들어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에 절실히 필요한 학습장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산하공장들에서 학습장생산을 다그치기 위해 종이보장대책을 우선적으로 짜고들었다.

여러 단위들에서 피해지역 학생들에게 수십만권의 학습장을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평양종합인쇄공장과 모란봉인쇄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빠른 기간안에 수십만권의 학습장을 생산하기 위한 전투가 낮에 밤을 이어 줄기차게 벌어지게 되였다.

전투장들마다에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갈 불같은 열의가 차고넘쳤다.

평양종합인쇄공장의 일군들은 생산과제를 받은 즉시 전투에 진입하여 첫날부터 10만권에 달하는 학습장표지인쇄를 다그쳐 끝내고 그 성과를 확대하여 이틀동안에 소학교학생들을 위한 학습장인쇄를 전부 끝내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현장에서 전투지휘를 패기있게 벌리면서 학습장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였다. 초급일군들도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 생산자대중을 이끌어나갔다. 우리 당의 후대사랑이 깃든 학습장이 하루빨리 피해지역 학생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해 공장의 로동자들은 완성작업에 정성을 쏟아부으며 한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계획한 학습장을 전부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에서는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수만권의 학습장과 많은 량의 수첩을 더 마련함으로써 총 13만 5천권의 학습장과 10만개의 수첩을 피해지역 학생들에게 보내주었다.

모란봉인쇄공장에서도 일군들이 제책직장과 생필작업반을 맡아가지고 현장에 내려가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들이대면서 생산전투를 지휘해나갔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밤이 깊도록 뛰고 또 뛰면서 생산조건보장에 우선적인 힘을 넣었다. 로력이 긴장한 조건에서 공장의 종업원들은 새벽부터 작업에 달라붙어 불이 번쩍나게 일손을 다그쳐 짧은 기간에 22만권의 학습장을 생산하는 놀라운 실적을 창조하였다.

외국문출판사의 일군들은 피해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두고 깊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받들어갈 일념을 안고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열고 많은 량의 학습장을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전투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자재와 로력보장대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외국문출판사인쇄공장에서는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일군들을 비롯한 공장의 많은 종업원들이 완성공정에 동원되여 생산전투를 힘있게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10만권의 학습장을 생산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국가우표발행국에서도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들고 철야전투를 벌림으로써 3일동안에 3만개의 수첩을 생산하고 수천개에 달하는 가가표 등을 인쇄하여 제때에 보내줄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후대사랑과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어 짧은 기간에 수십만권의 학습장과 많은 량의 수첩 등을 생산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에 받들려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배움의 종소리는 더욱 높이 울려퍼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공로혁

로씨야 연해변강행정부 부장관일행 귀국

쎄르게이 네하예브 로씨야 연해변강행정부 부장관과 일행이 9월 30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에 가는 중앙재판소대표단 출발

리명남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판소대표단이 로씨야의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진행되는 국제법률연단에 참가하기 위해 9월 30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성남 중앙재판소 부소장과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에 참가하였던 대표단, 대표들 귀국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에 참가하였던 로씨야과학원 원동분원대표단과 아일랜드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9월 30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조직위원회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이에 앞서 중국 국가보도출판, 라지오, 영화 및 TV방송총국대표단이 갔다.

[조선중앙통신]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10월 2일(일요일) 청춘거리 정경기관에서 4.25체육단, 기관차체육단, 평양체육단, 상업성체육단, 조선체육대학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탄력망경기가 있게 된다.

제13차 인민체육대회 체육단부문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다음주에 진행된다.

평양에서 탁구 1급경기가 10월 3일부터, 지상호케이 1급 녀자경기가 7일부터, 력기 성인급경기가 8일부터 시작된다.

조정, 카누, 요트, 물스키 성인급경기들이 2일부터 평양과 원산에서 벌어진다.

[조선중앙통신]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인민사랑의 력사를 자랑스럽게 새겨가자

무산, 연사지구 피해복구전투장에서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조선인민군 김충길소속부대 군인들

희천발전소 룡림언제건설에서 남다른 위훈을 떨친 조선인민군 김충길소속부대!

희천전역에 명성이 자자했던 오중흡7련대칭호를 쟁취한 이 부대의 위력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도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다.

단 40시간동안에 콩크리트로 파괴된 100m의 다리구간 해체, 련이어 철근가공과 조립 완성, 립체식 콩크리트타입에 진입.

우리는 전투기록장의 갈피마다에 새겨진 부대의 위훈담을 통하여 본 이곳 부대군인들의 값높은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전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조국보위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과 주요전구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모르고 언제나 앞장에 서야 합니다.》

부대가 연사읍으로 통하는 외통길에 전투좌지를 정한것은 9월 24일 밤 12시였다.

사품치는 물에 여지없이 무너진 파괴된 교각의 잔해들과 굽어진 다리우의 구조물들이 조명기구의 불빛에 비쳐졌다.

부대전투원들의 1차타격목표는 바로 교각의 잔해들과 굽어진 다리우에 남아있는 구조물들을 제거하는것이였다.

폭파를 하면 좋으련만 주변에는 살림집들과 골재적치장이 지척에 있었다.

단숨에 돌격로를 열어제낄 방도는 무엇인가. 지휘부의 초점이 여기에 모아졌다.

온 지휘관들의 협의회가 있었다.

《오늘의 전투는 총포성없는 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폭파방법이 아니라 함마전으로 돌파할것을 제의합니다.》, 《우리 구분대가 앞장에 서겠습니다.》…

공격전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에서 위험한 길을 여는 말수며 구 적은 공병들의 웨침이였다.

새벽 1시, 차지한 계선에서는 수많은 해머들이 하울렸다. 여기저기서 일당백병사들의 무쇠팔뚝을 자랑하며 떡메만 한 함마들을 휘둘러댔다. 손에 장알이 박히도록, 함마가 다 부서져나가도록 사품치는 물속에서, 아슬아슬한 교각에서 부대장병들은 일심동체가 되여 한뽐 한뽐 억척으로 굳어진 콩크리트들을 뜯어냈다. 당의 명령지시를 결사관철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가 없다는 신념으로 온몸을 불태우며…

이렇게 병사들은 이틀간의 백열전으로 계획보다 시간을 훨씬 앞당겨 100m의 파괴된 다리를 완전히 해체하였다.

당시 부대의 긴박한 전투일정으로 보아 부분적으로라도 발파를 조금씩 진행하여도 다른 일은 없을것이였다. 허나 이곳 장병들은 스스로가 어려운 길을 택한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였다.

이어 철근회수와 가공전투가 동시에 진행되였다. 병사들은 각종 철근들을 엿가락처럼 주물러대며 공격속도를 부쩍 높이였다. 련속적인 공격으로 전투성과는 분과 초를 다투며 확대되였다.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진격해가는 부대의 전진도상에는 또다른 난관이 막아섰다. 대형화물자동차 10대분에 해당한 통나무가 있어야 휘틀과 버림목들을 만들어 다리상판을 칠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주변산판의 나무 한대라도 다칠수 없다는것이 지휘관, 병사들의 한결같은 립장이였다. 그렇다고 필요한 량의 통나무가 다 도착하기를 기다린다면 결의한 다리복구기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한초 또 한초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들은 안타까움에 젖어있었다.

이때였다. 부대장이 해체한 콩크리트기둥잔해들과 구조물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휘틀과 버림목들을 훨씬 절약할수 있는 기발한 방안을 내놓았다. 많은 목재를 절약하면서도 다리기둥공사와 상판치기를 동시에 내밀수 있는 전격적인 작전안이였다.

부대정치부에서는 군인대중의 결사관철의 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의 도수를 한층 높이였다. 곳곳에 심장에 불을 지피는 글발들이 나붙고 화선기가 세차게 펄럭이는 전투장은 총포성없는 자연과의 대결장으로 변하였다.

파괴된 다리의 량옆측에서 콩크리트혼합물운반을 위한 통로들이 열리고 수백㎥의 골재가 운반되였다. 콩크리트혼합물을 집중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설비들도 전투장에 바싹 접근배치하였다.

전투승리의 담보는 이렇게 마련되였다.

그렇다. 공격속도보장에 앞서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푸르러 설레이는 산판의 나무 한그루라도 소중히 여길줄 아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가 가는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의 활로가 열려져있는것이다.

한치도 물러서지 말라

조선인민군 김영도소속부대에서

단 이틀동안에 수십세대 다층살림집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 완성, 이것은 200일전투의 최전방, 연사지구에 달려나온 조선인민군 김영도소속부대 군인들의 투쟁위훈의 일단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물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9월 24일 새벽 전투현장에 진출한 부대앞에 수십세대의 다층살림집을 일떠세울데 대한 전투임무가 하달되였다.

부족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건설장비도 륜전기재도 엄청나게 모자랐다. 하지만 맞불이와 미대로 백열전을 벌려가는 전투장속에서 누가 장병이고 군관이며 전사인지 가려볼수 없었다. 밤이 깊어가도 잠들줄 모르는 대격전속에 부대는 24시간만에 기초굴착공사를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대가 기초콩크리트치기공사에 진입할무렵이였다.

《물이 솟구친다!》

누군가의 다급한 웨침에 온 부대가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물을 처리하자면 몇대의 양수기를 동시에 걸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부대가 가지고나온 양수기는 단 한대, 지휘관들이 방도를 모색하느라 모인 그 짧은 시간에 공사장은 온통 물바다로 변했다. 부대지휘관 리영진동무의 불같은 웨침이 병사들의 귀전을 때리였다.

《동무들, 한치도 물러서지 맙시다. 나를 따라 앞으로!》

와-와- 드높은 돌격전의 함성, 온 부대가 물속으로 뛰여들었다. 온종일 물속에서 힘겨운 전투를 벌리느라 장병들의 발은 퉁퉁 부어오르고 입술은 부르터 갈라졌다. 그러나 공사장에는 혁명의 노래소리가 밤하늘을 헤가르며 울려퍼졌다.

한편 부대지휘관들은 수력발전소건설장에서 흔히 적용하는 가물막이공법을 대담하게 도입하여 기초의 물처리를 앞세웠다.

주력동무를 비롯한 부대지휘관들과 군인들은 한바줄한뽕으로 흙마대들을 기초골로 날라 물이 스며드는 장소들에 쌓고 작업구간의 물부터 먼저 퍼내면서 동시에 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였다.

열여일이 걸려야 한다던 물속에서의 기초콩크리트치기는 불과 군인들의 공격정신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끝났다.

통나무운반과 목재가공전투도 결사전이였다. 하루 몇시간씩 자면서 주먹밥으로 때식을 이어가며 콩크리트타입에 요구되는 휘틀을 제때에 보장하였다.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의 가장 빛나는 붉은 화살표가 되리라.

바로 이것이 불굴의 투쟁을 벌리는 부대장병들의 불타는 신념이다.

‖ 현지보도 ‖

전화위복의 려명이 밝아온다

별들도 조으는 북변의 밤. 여기 두만강기슭 무산군 읍지구의 살림집건설장은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는다.

온 건설장이 불야경을 이루었다.

대형화물자동차들의 전조등에서, 곳곳에 설치된 투광등들에서 발산되는 조명빛에 《단숨에》, 《인민사수전》, 《당정책옹위전》 등의 힘있는 글발들이 안겨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입니다.》

각 부대별로 전개된 방송차와 기동예술선동대의 호소성이 강한 노래와 선동은 대지를 진감하는 방사포의 일제사격처럼 련속포화를 울리댄다.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주는 그 불빛에 용을 쓰는 굴착기들과 삽차들의 작업모습, 굴함없는 공격전에 나선 군인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

공사장은 그야말로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진다.

세멘트와 골재운반을 맡은 군인들이 대오를 짓고 달린다.

직전으로 육박하는 결사대인양 돌격의 함성들이 나는듯이 달려가는 철의 대오. 그들이 해당 위치에 들어서는 그 순간이면 대형화물자동차 한대분만 한 량의 골재가 쌓아진다.

혼합물보장을 맡은 전투원들이 그들에게 뒤질세라 불이 번쩍 나게 삽질을 해댄다. 불꽃이 튕기는 삽날들에 의해 산같이 쌓였던 세멘트와 골재가 순식간에 없어진다.

잘 혼합된 콩크리트혼합물이 련속 기초콩크리트타입장으로 옮겨진다.

콩크리트혼합물이 비탈진 조구를 따라 연해연방 휘틀속에 내려쌓인다.

한몸이 그대로 콩크리트혼합물이 되여서라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할 드센 열의가 조금도 지칠줄 모르는 그들의 구리빛얼굴마다에 력력히 어린다.

현장에서 만난 지휘부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한다.

《하루전에 기초굴착이 끝났는데 벌써 이렇게 기초콩크리트치기가 완료되였습니다. 이 기세로 나가면 단 보름동안에 5층살림집골조공사를 전부 끝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린접한 부대들의 공사실적도 일정계획보다 앞서나간다며 수십동의 살림집이 두만강기슭에 일떠설 그날은 멀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호응하듯 격전으로 밤을 밝힌 전투현장의 저 멀리에서 려명이 밝아온다.

머지않아 여기 무산군 읍지구에 높이 울리게 될 전화위복의 승전포성을 예고하며.

인민복무전의 숭고한 뜻 받들어

무산광산련합기업소병원의 의료일군들이 피해복구전투장에서 현장치료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병원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긴급의료방조와 치료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한 비상협의회가 열리였다.

있을수 있는 모든 정황들을 예견하며 빈틈없는 치료대책과 환자후송문제들을 협의한 후 자리에서 일어난 당책임일군은 의사, 간호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에 동무들이 서있습니다. 당의 믿음, 인민들의 기대를 무겁게 새겨안고 1950년대 화선군의들처럼 전투를 벌립시다.》

협의회가 끝난 즉시에 김용인, 한춘희동무들을 비롯한 의사, 간호원들이 피해지역의 여러 방면으로 떠나갔다.

한편으로는 구급치료전투를 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들에 대한 후송대책을 세우며 밤이 지새도록 이곳 의료집단의 의사, 간호원들은 정성의 길을 걷고 또 걸었다.

긴급치료전투는 병원에서도 벌어졌다. 집중치료대에 파견된 의사, 간호원들이 온밤 병원으로 달려오고 그말음으로 피해지역으로 떠나갈 때면 병원에 남은 의사들모두가 집중치료전투를 벌리며 새날을 맞고보냈다. 최종선, 최승혁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밤이전 새벽이전 의사협의회를 거듭하며 환자들에 대한 집중치료전투를 벌리였다. 약제사들은 여러가지 수용액과 고려약들을 떨구지 않고 보장하기 위해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발동발전기를 돌리고 약제조원천을 찾아 산발을 타고넘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병원 의료일군들은 무산군인민병원 치료집단과 협동하여 피해지역 광부들과 주민들에 대한 예방접종사업도 진행하였다. 넓은 지역의 주민지구들과 분산적으로 널려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끊어진 도로를 넘고넘으며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을 한명한명 찾아내여 마지막 한사람에 이르기까지 예방접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역시 총포성없는 전투였다.

오늘도 무산광산련합기업소병원의 의료일군들과 간호원들은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전투장들에서 현장치료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해발이 더욱 밝게 비쳐들게 할 한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 인민군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의 지성어린 물자들이 피해지역에 계속 도착 ◇

당의 은정속에 청춘을 노래하는 로세대들

국제로인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평양양로원을 찾아서

로년과 로쇠는 시간표대로 온다는 말이 있다. 허나 인생의 로년기에 들어선 로인들이 청춘기를 노래하는 행복의 집, 장수자들의 보금자리가 있으니 바로 평양양로원이다.

평양양로원이 훌륭히 일떠선 때로부터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 1년동안에 우리의 주인공들의 생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복된 삶을 누려가고있는 그들을 만나보고싶어 얼마전 우리는 이곳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의리를 지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도덕기풍입니다.》

양로원으로 들어서는 우리의 귀전에 흥겨운 북장단에 맞춰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저도모르게 그곳으로 향한 우리의 눈앞에 흥겨운 춤판이 펼쳐졌다.

…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

…

마음도 청춘이요, 춤가락 또한 젊은이들 못지 않은 보양생들, 누구나 함뿍 웃음을 담고 어깨를 들썩이며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우리는 원장 최청심동무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가고 물었다.

그러자 최청심동무는 그저 평범한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 보양생들에게는 흘러가는 날과 달이 명절과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며칠전 보양생들은 당의 은정이 어려있는 메기를 받아안았다. 온 나라가 북부피해복구전선의 승리를 위해 총동원, 총집중하는 때에 조국을 위해 흙 한삽도 들어올리지 못하는 고목과도 같은 자기들에게 그렇듯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준 당의 은정에 접하게 되었으니 누구인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있었으랴.

바로 그날도 1년 365일중의 평범한 날이였다.

우리는 후더워지는 마음을 안고 고추와 가지포기들이 가지런히 자란 터밭으로 걸음을 옮겼다. 터밭에서 남새를 수확하고있는 한 보양생의 모습이 보였던것이다. 그에게 다가간 우리가 힘들지 않은가고 묻자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다.

이것도 우리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장수료법이라오. 구수한 땅냄새도 맡고 싱그러운 풀냄새도 맡으니 온몸에 기운이 부쩍부쩍 솟아난다오라고.

알고보니 그는 80살인 전쟁로병 윤옥히할머니였다.

이때였다. 우리가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라는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 할머니들이 다가오는것이였다. 그들중 한 할머니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는 베여버리고 새 나무를 심듯이 사람이 늙으면 물러나는것이 인생의 리치이건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93살 난 한보비할머니의 마음뿐만이 아닌 보양생모두의 진정어린 심장의 목소리인것이다.

한보비할머니의 뜨거운 이야기에 최청심동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 보양생들속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말이 있는데 오래오래 사는것이 우리 원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는것입니다.》

오래오래 사는것이 보답하는 길.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나라에서만 태여날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로인들이 쓸모없는 사회의 페물로 치부되여 학대와 랭대를 받으며 살아가고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내 나라에서는 로인들이 혁명선배로, 웃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다.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 집, 평양양로원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터놓는 보양생들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그렇다. 누구에게나 집은 있다. 그러나 앞방에도 뒤방에도 어머니당의 사랑이 가득차있는, 구내의 산보길에도, 정원의 나무 한그루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이 뜨겁게 넘쳐있는 이보다 더 따뜻하고 훌륭한 집, 삶의 보금자리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으랴.

양로원을 떠나는 우리의 눈앞에는 날아가는 학을 형상한 울타리가 안겨왔다.

진정 평양양로원은 어머니 우리 당의 사랑이 뜨겁게 넘쳐흐르는 행복의 집이였다.

신 철

년로자들을 존경하고 보호하는 우월한 사회제도

세계적으로 로인인구비률이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전문가들은 2050년에 가서 로인인구가 세계인구의 21%이상을 차지하게 될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인구로화현상은 몇개 나라나 지역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지역과 나라들에서 다같이 나타나고있다. 현실은 로인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구상에서 인구로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것은 지난 세기 중엽부터이다. 그때는 몇몇 발전된 나라들에서만 인구로화문제가 제기되였다. 그러던것이 20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도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로인인구비률이 증가하고 로인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따라 로인들에 대한 사회적시책을 실시하는 문제가 나서게 되였다. 이로부터 1990년에 진행된 제45차 유엔총회에서는 《국제로인행동계획실시와 활동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해마다 10월 1일을 국제로인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많은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서는 이날을 계기로 여러가지 행사들을 조직하여 로인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고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여 보람찬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왔다.

년로자보호사업이 활성화되고 이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 사업을 국가의 중요한 사회적시책의 하나로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장악통제, 조직집행해나갈수 있는 기구인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를 내왔다.

이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을 채택함으로써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보장하고 년로자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년로자들을 존대하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웃사람을 존경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더욱 활짝 꽃펴나 우리의 년로자들은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속에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있다.

그러나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물젖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차별과 학대의 대상이 된 로인들의 한숨소리만 날로 높아가고있다.

집세를 물지 못해 쫓겨나 살다가 누구도 모르게 죽거나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으며 자식들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와 홀로 살고있는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대다수 로인들의 처지이다.

로인차별문제는 더이상 미룰수 없는 사회적문제로 되였다.

이로부터 유엔은 올해 국제로인의 날의 주제를 《로인들을 존대하자》로 제기하였다.

사회적으로 누구보다 존경받아야 하는것은 년로자들의 응당한 권리이지만 이것은 그 어느 사회에서나 보장되는것이 아니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고 년로자들이 사회적인 존경과 우대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보살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인생의 황혼기도 청춘이라는 노래소리가 높이 울릴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있다.

올해 국제로인의 날을 맞으며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 예술공연, 체육경기와 유희오락경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고있다. 이것은 년로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편의와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박 예 경

‖ 뿌리는 보이지 않아도 ‖

○ 득장구 갈골동 로인들 ○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이어온 혁명선배,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고있는 사람들속에는 득장구 갈골동 로인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튼튼한 뿌리가 없는 나무가 거목으로 성장할수 없듯이 조국도 뿌리와 같은 애국자들이 없으면 강성번영할수 없습니다.》

지난해 3월 식수절을 맞으며 삽과 곡괭이를 메고 언덕으로 오르는 로인들이 있었다.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있는 풍지에 이르러 열심히 고랑을 파고 이랑을 정리해나가는 그 모습들은 마치도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같았다.

평균나이 70살의 로인들에게 누가 과업을 주었고 무슨 임무가 있으랴만 그들에게는 스스로가 맡아안은 성스럽고도 중요한 량심의 의무가 있었다.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아프시였으면 산림복구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이라고 하셨겠는가. 원수님의 애국의 의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받들어야 할 명예당원, 공로자들이 아닌가. …

전당, 전군, 전민을 산림복구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받들고 홍정보로인을 비롯한 마을의 년로자들은 룡산탄광당조직을 찾아갔다.

그들의 결심을 들은 탄광당조직에서는 힘에 부치는 일이고 년세도 많으니 그만두라고 거듭 만류하였다.

하지만 애국에 불타는 그들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었다. 하여 해당 일군들과 토론하고 얼마전에 묘목장의 위치를 정해주었는데 그말음으로 나와 일을 하고있는것이였다.

이렇게 시작된 일이였다. 그 나날에 꽃핀 이야기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비가 오면 어린 모가 넘어지지나 않을가, 눈이 오면 얼지나 않을가 하여 양묘장으로 달려나오면 낮과 밤이며 손에 설고 경험이 없지만 한그루의 나무모라도 튼튼히 키우기 위해 걷던 길들…

마음은 불같았으나 따라서지 못하는 육체로 하여 힘들 때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힘을 준것은 탄광당조직이였다. 당조직에서는 그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탄광속보판에 내주어 사람들 누구나 알게 해주었고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었다.

어제날의 탄부시절처럼 아침마다 《출근길》에 나서는 그들에게 보내는 탄광사람들의 인사가 로인들에게는 더없는 힘이 되였다.

어머니당조직의 믿음과 집단의 관심속에 그들은 더욱 열성을 쏟아부었고 나무모는 날이 다르게 커갔다.

멀지 않아 그것들은 조국의 산발들에 자기의 뿌리를 내리고 거목으로 자랄것이다.

그날에 사람들은 뿌리를 볼수 없다.

하지만 잊지 않을것이다. 그 거목을 자래운 애국의 뿌리, 우리 혁명선배들의 불타는 애국심을.

염 금 명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대중적인 반미애국항쟁

온 남녘땅을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군정》통치에 항거하는 반미함성으로 뒤흔든 10월인민항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70년이 되였다. 항쟁은 지금도 겨레의 기억속에 반미자주화투쟁의 거세찬 불길로 뚜렷이 새겨져있다.

남조선인민들은 10월인민항쟁을 통하여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애국적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10월인민항쟁은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식민지예속화정책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애국적인 반미항쟁이였다.

조국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자기의 손으로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하지만 일제를 대신하여 남녘땅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미제는 《군정》을 선포하고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였으며 애국적민주세력의 진출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이로 하여 정치적무권리와 인간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한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파쑈통치를 반대배격하는 대중적투쟁에 떨쳐나섰다. 1946년에 들어와 전라남도 화순탄광로동자들의 투쟁과 하의도농민들의 투쟁은 남조선전역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단행한 9월총파업으로 확대되였으며 그것은 마침내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의 로동자, 시민들의 투쟁을 발단으로 하여 대중적항쟁으로 폭발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희생된 로동자들의 시체를 메고 거리에 떨쳐나온 항쟁군중들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 결사반대!》,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폭압통치기관들을 습격, 파괴하는 등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대구에서 타오른 항쟁의 불길은 삽시에 남조선전역을 휩쓸었다. 미제의 류혈적인 탄압만행에도 불구하고 근 두달동안이나 줄기차게 벌어진 항쟁에는 남조선의 73개 시, 군에서 약 230만명의 애국적인민들이 참가하였다. 10월인민항쟁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민족을 반역한 친미주구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였다.

하지만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고 침략자와 매국노들이 없는 세상에서 자주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 떨쳐나섰던 항쟁용사들은 《해방자》의 탈을 쓴 미제에 의해 무참히 쓰러지고 투쟁의 거리들은 인민들의 피로 물들었다. 항쟁용사들은 총칼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자주, 민주, 통일을 절규하였고 피의 복수를 부탁하였다.

10월인민항쟁은 그후 제주도4.3인민봉기, 4.19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인민항쟁 등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자주, 민주, 통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10월인민항쟁이 있은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남조선에서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지배는 계속되고있으며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는 여지없이 짓밟히고 조국통일도 이룩되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범죄적인 대조선침략정책과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을 반역하는 친미주구들의 더러운 매국반역행위에 기인된다.

지금 미국은 날로 더욱 고조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기운을 눅잦히고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그 무슨 《북의 핵, 미싸일위협》을 요란하게 광고하며 긴장격화와 반공화국압살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미국을 할애비로 섬기며 그와의 《동맹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박근혜역적패당은 동족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미친듯이 걸고들며 상전과 야합하여 반공화국제재와 북침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지금 괴뢰통치배들의 친미사대, 친미역적행위는 력사상 최악의 지경에 이르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무기한연기와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소동 그리고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외세와 함께 발광적으로 감행하고있는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이 날로 고조되고있는것은 미국과 그에 적극 추종하는 박근혜역적패당이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끊임없이 벌려놓고있는 북침핵전쟁연습과 도발적인 무력증강의 필연적결과이다. 미국은 전조선반도를 지배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패권적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는것도 서슴지 않으려 하고있다. 괴뢰역적들도 상전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저들의 추악한 동족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고있다.

현실은 온 겨레가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거족적인 반미항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에서 거족적인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투쟁으로 10월항쟁용사들의 념원을 실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근본장애물을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은 우리 민족이 당하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철천지원쑤 미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증오심을 안고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조국통일위업을 해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준렬히 폭로단죄하며 미국의 침략책동에 온 겨레의 단결된 힘으로 맞서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배치되는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될수 없다. 미국은 자주와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똑바로 알고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군대를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

박근혜역적패당은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해치며 파쑈독재와 동족압살책동에 미쳐돌아가는 가증스러운 반역무리이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박근혜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자주권과 생존권을 실현할수 없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이룩할수 없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목숨바쳐 싸운 10월항쟁용사들의 넋을 욕되게 하며 미국의 개노릇을 하는 박근혜역적패당을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한다.

진정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바라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내쫓고 박근혜역적패당에게 징벌의 철추를 안기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바로 거기에 남조선인민들이 10월항쟁렬사들이 흘린 피값을 받아내고 자주의 새세상,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는 길이 있다.

리 호 진

위기모면을 노린 산송장의 필사적몸부림

요즘 박근혜역도가 주둥이만 벌리면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드는 악담을 마구 내뱉고있다.

며칠전 청와대에서 장, 차관모임이라는것을 벌려놓은 역도는 우리의 자위적인 핵탄두폭발시험에 대해 《도발》이니 뭐니 하고 헐뜯으면서 《안보위기가 고조》된다고 아부재기를 쳤다. 한편 네데를란드수상과 만난 자리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개나발까지 불어대면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그 누구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미친듯이 고아댔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욱소리뿐이라고 동족대결에 환장한 청와대악녀의 오물통같은 입부리에서 구린내나는 수작밖에 더 나오겠는가. 역도가 매일과 같이 쏟아내는 반공화국대결망발은 날로 강위력해지는 우리의 핵억제력앞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 리성을 잃고 집히대는 대결광녀의 넋두리이다.

박근혜역도가 《안보위기》니 뭐니 하고 피대를 돋군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괴뢰역도는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이후 뻑하면 《비상사태》니, 《안보위기》니 하고 법석대면서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고있다.

그야말로 뻔뻔스러운짓이 아닐수 없다. 그래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때문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당하고있단 말인가. 입은 삐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어야 한다.

박근혜역도가 《도발》이니 뭐니 하며 우리가 《안보위기》를 고조시킨다고 걸고들었지만 사실 도발과 위기의 장본인은 미국과 괴뢰패당자신이다. 최근에도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핵전략폭격기 《B-1B》를 비롯한 악명높은 핵전쟁장비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련속 끌어들이면서 우리를 위협공갈하고 북침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분별없이 날뛰였다.

하지만 도발자들은 감히 선불질은 하지 못하였다. 동방의 핵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강위력한 핵억제력이 적대세력의 무모한 핵전쟁음모를 저지시키고있다.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에 의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전이 굳건히 담보되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의 《도발》에 의한 《안보위기》에 대해 련일 꽥꽥대며 동족대결기운을 악랄하게 고취하는 박근혜역도야말로 희세의 정치사기군, 대결미치광이가 아닐수 없다.

하다면 괴뢰역도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문제를 코에 걸고 《안보위기》북통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름아닌 최악의 통치위기모면이다.

지금 역도패당은 헤어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였다. 《싸드》배치소동과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통해 괴뢰보수패당의 사대매국적정체가 여지없이 폭로된 속에 사상 류례없는 로동악정까지 강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각계층 인민들의 반《정부》기운은 거세차게 폭발하고있다. 엎친데덮친격으로 괴뢰집권층내부에서 련속 터져나오는 권력형부정부패사건들은 청와대악녀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있다. 바빠맞은 괴뢰역도는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을 걸고 《안보위기》를 극구 고취하면서 분노한 민심의 초점을 흐려놓고 경각에 다달은 더러운 운명을 건져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은 대내외정책의 총파산으로 초래된 심각한 위기에서 어떻게 하나 헤어나보려는 가련한 산송장의 필사적몸부림에 침을 뱉고있다.

역도가 《제재와 압박》이니 뭐니 하고 외세에게 반공화국압박공조를 청탁하며 빌붙은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청와대의 창녀따위가 외세를 불러들고 제재와 압박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거기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외세의 사타구니에 붙어 동족을 해치려고 기승을 부리는 더러운 매춘부의 대결광기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역적패당을 한시바삐 쓸어버릴 결심과 의지만을 더욱 굳게 해주고있다.

박근혜역도가 아무리 《안보위기》니 뭐니 하고 앙탈질을 하고 외세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강화한다 어쩐다 하며 소란을 피워도 소용이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발광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무적의 핵억제력으로 단호히 쳐갈기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것이다.

박근혜역적패당의 대결광기는 저들의 비참한 파멸을 재촉할뿐이다.

온 정 철

미국과 괴뢰해군 북침지상목표타격훈련 감행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9월 26일 조선동해에서 우리의 지상목표들을 타격하는데 기본목적을 둔 해상훈련에 광분하였다.

미국과 괴뢰해군의 유도미싸일구축함,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한 함선들과 해상초계기, 대잠직승기들이 여기에 투입되였다.

호전광들은 함선들에 장비된 미싸일들로 우리의 지상목표물들을 정밀타격하는 훈련에 돌아쳤는가 하면 전술기동훈련, 대잠수함훈련도 벌려놓으며 광기를 부렸다.

괴뢰패당은 이번 군사연습을 두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훈련과 달리 이루어진 첫 해상작전, 공세적인 작전이라고 내놓고 떠들고있다.

얼마전 미국과 괴뢰패당은 우리의 핵무력사용위협이 포착되거나 사용이 림박하였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전략폭격기, 핵추진잠수함, 정밀유도무기 등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선제타격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3단계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을 실제적인 작전계획으로 확정하고 공개하였다.

이 핵전쟁각본을 수행하기 위해 미제침략군의 핵전략폭격기가 이미 남조선에 기동전개되였다.

뒤따라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남조선과 주변에 배치될것이라고 한다.

북침실전계획의 공표와 그에 따르는 공격적인 군사연습, 핵타격수단들의 집중배치 등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은 우리와의 대결에서 저들의 정치군사적렬세를 만회하기 위한 발악적인 도발로서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통제불능의 상태에로 몰아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단평　지 옥 같 은 세 상

최근 남조선에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그 대부분이 20대미만의 청년들이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남조선언론들은 집권자의 악정이 초래한 《지옥같은 남조선》시대에 환멸과 절망을 느낀 사람들이 저주로운 땅을 앞을 다투어 떠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정보정치, 공포통치가 부활되여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깡그리 유린말살되는 파쑈란무장, 근로대중이 짐승취급당하는 현대판노예사회, 온갖 재난과 불행이 범람하는 아수라장, 미래가 없는 암흑세상에 누가 미련을 품고 있겠는가. 지옥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자라야 할 나어린 학생들까지 《학교가 딱 지옥같아 다니기가 싫다.》고 할 정도로 청와대마녀가 독기를 뿜는 남조선은 사람 못살 세상이다.

그러니 남조선에서는 불행과 고통만을 안겨주는 사회가 싫다고 하면서 떠나가고 저주로운 땅에 자식들의 미래를 맡길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목숨을 끊는 참상이 그칠새 없다.

무지한 아낙네는 남만 나무란다고 이 모든 재난을 초래한 박근혜역도는 남조선을 지옥으로 표사하는 《잘못된 풍조》니 뭐니 하고 고아대면서 자기의 반인민적악행을 뻔뻔스럽게 미화분식하고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것인가.

인민들의 생존권을 깡그리 유린말살하고 그들을 죽음의 벼랑턱으로 내몰고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맹혈한의 추태에 사람들이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조 남 수

사대와 굴종으로 얻을것은 수치와 죽음뿐이다

사대의 멍에를 쓰고 이 바람, 저 바람 다 맞으며 외세의존의 비탈길로 삐걱거리며 굴러가던 박근혜《정권》이라는 초라한 집마차가 마침내 파멸의 수렁에 빠져 좀처럼 헤어나올념을 못하고있다.

최근 박근혜패당의 처지는 내외여론들이 평하다싶이 독지고 하늘소 탄것처럼 매우 위태롭다. 희세의 파쑈독재자, 악랄한 동족대결광, 추악한 친미역적의 반역적망동은 온 남조선땅에 분노의 해일을 몰아왔고 그 거세찬 폭풍은 청와대의 썩은 기와장과 들보를 사정없이 뒤흔들고있다.

제몸도 가누지 못하는 주제에 미국의 사환군이 되여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고집스럽게 추진함으로써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치군사적균형을 깨뜨리고 어망처망한 대결의 불씨를 날린 남조선괴뢰들에게 주변나라들은 강한 격분과 환멸을 표시하고있다. 사실 남조선에 《싸드》를 끌어들인다고 하여 파멸의 종착점에 다달은 미국의 운명과 그 바지가랭이를 붙잡고있는 박근혜패당의 신세에서 달라질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의 《싸드》따위로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우리의 핵공격수단들을 막아보겠다는것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것이다. 박근혜패당이 하내비처럼 믿고있는 미국도 그에 대하여 자인하고있다. 《싸드》가 배치된다고 하여도 사용권은 철저히 미국이 쥐고 하수인인 괴뢰들은 그 비용을 섬겨바치는 등 뒤치닥거리만 해야 할 판이다. 문제는 박근혜와 그 패당이 한사코 끌어들이려는 《싸드》라는 괴물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무서운 핵참화를 들쓰게 된다는데 있다.

《싸드》가 배치되면 남조선은 오히려 그것이 표적이 되여 여기저기에서 핵공격세례를 받게 되여있다. 《싸드》의 남조선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있는 주변나라들은 이미 그에 대해 괴뢰들에게 명백히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역도는 《북핵위협》이라는 기만적인 술수로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를 기어코 끌어들이려 하고있는것이다. 그로 하여 초래된 대내외적고립의 책임에 대한 값은 올바으로 괴뢰정계도 란장판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남조선은 총체적파국의 위기에 처하였다.

남조선의 현 사태는 박근혜역적패당의 친미사대정책, 매국반역망동의 필연적산물이다.

남조선괴뢰들의 생존방식은 맹목적이며 무조건적인 외세추종이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 《대통령》과 《국회》, 《정부》라는것은 있어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미국의 지배정책실현의 한갖 도구에 지나지 않는 곳이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언론이 미국의 존재를 도외시하고 남조선의 정치를 론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개탄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매국노 리승만으로부터 박근혜역도에 이르기까지 력대 괴뢰통치배들은 누구나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수치의 기록만을 남기였다. 이자들의 정치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상전이 시키는대로만 하는 꼭두각시놀음이였다.

해방의 감격과 환희를 강점의 군화발로 짓밟아버린 침략자 미제를 그 무슨 《은인》으로 섬기며 자주권을 통채로 섬겨바친 역적들도, 온 남녘땅을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미국의 핵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희세의 강도무리 미제침략군이 제세상처럼 활개치도록 한 쓸개빠진 매국노들도, 남조선에 썩어빠진 양풍, 왜풍을 끌어들여 수천년을 이어오던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을 어지럽힌 패륜아들도 력대 괴뢰통치배들이였다. 박근혜패당의 망동은 그 극치이며 절정이다.

박근혜《정권》은 남조선의 력대 그 어느 괴뢰정권보다 더한 미국의 《허수아비정권》, 《꼭두각시정권》이다. 미국은 이런 천하에 둘도 없는 친미역적을 제 마음대로 주무르며 침략적리익을 실현해가고있다. 가련한 괴뢰패당은 미국에 무작정 아부추종하다가 때없이 뺨맞고 풍무니를 걷어채우면서도 눈먼 망아지 워낭소리 듣고 따라가듯이 굴종의 길로 경황없이 줄달음치고있다. 박근혜역적패당은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사대와 외세의존, 동족대결에 갈수록 기승을 부림으로써 스스로 자멸을 재촉하고있다.

최근 박근혜패당은 민족의 대경사이며 자랑인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을 걸고 《비상사태》니, 《전쟁이 터질수도 있다.》느니, 《북과의 대결에서 기필코 이겨야 한다.》느니 하고 고아대며 《안보위기》론을 고의적으로 류포시키는 한편 《싸드》배치반대투쟁 등 남조선 각지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는 반《정부》투쟁들을 가차없이 탄압하고있다. 이것은 《북핵위협》을 구실로 더욱 살벌한 《안보정국》을 조성함으로써 극도에 달한 저들의 정치적위기를 모면하고 어떻게 하나 재집권의 출로를 열어보려는 흉악한 속심의 발로이다.

하지만 괴뢰들이 스스로 빠져든 파멸의 수렁에서 발을 뽑기에는 때가 너무도 늦었다. 력대 괴뢰통치배들중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지탱하고있는 가련한 《식물대통령》의 통치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도의 정치적무능과 부정부패, 동족대결과 친미굴종으로 남조선을 인간생지옥, 중세기적암흑지대로 전락시킨 박근혜역도에 대한 인민들의 원성과 분노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화산처럼 분출하고있다.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을 위한 총알이 되여 핵전쟁살인장비인 《싸드》를 끌어들이면서 남조선을 외세의 핵대결장으로 섬겨바치는 만고역적을 청와대에서 당장 몰아내자는것이 남조선민심의 웨침이다.

지금 박근혜패당이 《비상사태》니, 《위기》니 하고 떠들지만 사실상 그것은 친미보수세력들자신에게 닥쳐온 피할수 없는 파멸이고 준엄한 심판이다.

남의 정신으로 살고 남의 품에 노는 가련한 정치머슴군들의 말로는 의심할바없이 파멸이다.

대미추종에 환장한 박근혜역적패당이 그 매국반역의 대가를 비참한 종말로 치르게 될 시각은 멀지 않았다.

허 영 민

전략무력강화에 힘을 넣고있는 로씨야

로씨야가 가중되는 나토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하여 국방력강화에 계속 힘을 넣고있다.

최근 항공폭격대에 대한 로씨야국방성의 계획적인 검열명령을 받은 항공폭격대 및 타련합부대들은 즉시에 완전한 전투동원태세에 들어갔으며 2개의 독립대대전술그루빠는 장갑기술기재를 리용하여 200여㎞ 떨어져있는 사격장과 비행장들에 도착하여 훈련에 진입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로씨야전략로케트군 련합부대들은 복잡한 조건속에서 공중타격수단들을 리용하여 《적》의 《파괴암해집단》의 대상물들에 가상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4 000명의 군인들과 약 400대의 전투기술기재들이 동원된 이번 훈련에서 군인들은 맡겨진 전투임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높은 준비상태를 보여주었다.

이보다 앞서 수백대의 대형전투기술기재들이 동원된 속에 전략로케트군의 훈련이 진행되였다. 이동식미싸일종합체들로 장비된 9개의 미싸일련대가 야전진지에서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번 훈련은 전투순찰구간들에서 기동활동을 하면서 《파괴암해부대》와 《적》의 정밀무기타격에 대응하는것과 함께 강한 전파장애가 조성되고 부대배치구역들에서 《적》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조건에서 맡겨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였다.

훈련기간 미싸일종합체와 그 보장부대군인들이 고정주둔지를 떠나 《파괴암해분자》들의 활동과 공중타격을 막으면서 가상적인 미싸일발사를 진행하였다.

흑해함대의 함선들에서는 잠수함탐색, 발견 및 추적시 반잠전투원들의 행동질서와 함께 잠수함이 머물고있는 곳으로 예측되는 수역에서 반잠항공대 비행기들과 협동하는 작전이 련마되였다.

로씨야는 무장장비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로씨야항공우주군의 련합부대 및 군부대들에 30여대의 비행기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무장장비들이 공급되였다.

전파탐지부대들은 현대적인 전파탐지설비들을 새로 받았으며 로케트부대들은 《C-300》, 《C-400》종합체용유도미싸일들을 받았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로씨야국방성이 최신형땅크 《T-14》(아르마따)의 실전능력을 보여주는 편집물을 공개하였다. 편집물은 이 땅크가 언덕들과 참호들을 통과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로씨야가 《T-14》의 실전능력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현재 계렬생산에 들어간 《T-14》는 머지않아 로씨야의 서부에 주둔해있는 땅크집단군에 제공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로씨야가 무력강화에 지난 시기보다 배가의 힘을 넣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외신들은 로씨야의 이러한 움직임을 국경가까이에서 로씨야를 겨냥한 군사적압박에 매달리고있는 미국의 책동에 대한 응당한 대응조치로 평하고있다.

미국은 로씨야국경주변에 나토무력을 집결시켜놓고 로씨야를 자극하고있다.

현재 동유럽나라들에는 30여대의 전투기를 비롯하여 약 1 200대의 전투기술기재와 수천명의 군인들이 항시적으로 주둔하고있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은 로씨야국경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고있다.

얼마전 미공군의 《F-15C이글》전투기 16대가 에스또니야의 상공에 날아들어 여러 나라들과의 합동훈련에 참가한 사실, 뽈스까의 와르샤와에서 진행된 열병식에 미군병사들과 땅크들이 참가한 사실 등은 어떻게 하나 로씨야국경주변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고조시켜 로씨야를 군사적으로 견제압박하려는 미국의 속심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분석가들은 로씨야를 잠재적인 적수로 여기고있는 미국의 대로씨야포위환형성책동이 계속되는 한 그에 대처한 로씨야의 대응조치도 보다 강해질것이며 앞으로 로미사이의 대결구도가 더욱 뚜렷해질것으로 예측된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수 진

오 늘 의 나 이 제 리 아

나이제리아는 아프리카의 서부 기네만기슭에 위치하고있다. 나이제리아라는 이름은 이 나라를 적시며 흐르는 니제르강의 이름에서 유래되였다고 한다.

오랜 세월 외래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받아온 이 나라 인민은 1960년 10월 1일 마침내 수난에 찬 식민지력사를 끝장내고 영련방에서 독립하였으며 1963년 10월 련방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나이제리아인민은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새 생활창조,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원유와 천연가스채취업은 나이제리아경제의 기본을 이룬다. 여기서도 원유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데 하루에 수많은 원유를 생산하고있다.

최근 세계적인 원유가격의 파동은 원유수출에 크게 의존하고있는 나이제리아의 경제구조를 다각화하는데로 떠밀고있다. 이런데로부터 지난 5월말 이 나라 대통령은 전국방송연설에서 자국경제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농업과 축산을 발전시켜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공업생산능력을 확대하는데 힘을 넣을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나이제리아정부는 나라의 농업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계획수행에 착수하였다. 그에 따라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고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관개농사를 위해 전국도처에 더 많은 언제들을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고 한다.

과학기술발전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나이제리아정부는 지난 8월 생물연료연구사업을 위한 국가조정쎈터를 내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쎈터에서는 생물연료 및 생물가스 등 대용에네르기를 개발하며 그 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쎈터의 설립은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 나라 정부는 현시기 세계적추세의 하나로 되고있는 우주기술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사업에도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있다.

얼마전 이 나라의 수도 아부쟈에서 제16차 국가우주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개막식에서 나이제리아 과학기술상은 우주기술이 자기 나라의 주요수입원천인 원유를 대신할수 있는 유력한 요인으로 될수 있다고 하면서 우주기술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의 효과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원격의료봉사활동을 개선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자주적인 삶을 위한 나이제리아인민들의 투쟁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유럽동맹의 부당한 요구를 배격

필리핀대통령 로드리고 드테르테가 최근 유럽동맹의 부당한 요구를 배격하였다.

얼마전 유럽의회가 필리핀정부의 반마약투쟁노력을 비난하면서 그에 대한 즉시적인 조사를 요구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철면피한 행위로 락인단죄하였다.

그는 유럽의회의 식민지시대 조상들은 아랍인들을 비롯하여 수천명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비난하였다.

반테로투쟁을 강화할 립장 천명

수리아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민상 왈리드 알 무알렘이 9월 24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반테로투쟁을 강화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테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수리아정부군은 많은 나라들의 지원하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테로를 박멸하고 승리를 이룩할 정부의 결심은 그 어느때보다 더 확고해졌다고 강조하였다.

장거리탄도미싸일개발을 추진시킬것이라고 언명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상이 9월 25일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장거리탄도미싸일개발을 계속 추진시켜나갈 립장을 천명하였다.

최근년간 나라의 미싸일공업이 기술적측면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이제는 이란이 각이한 사거리와 정확도,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각종 미싸일들을 자체의 힘으로 설계하고 제작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말하였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먼거리의 해상목표들을 타격할수 있는 새형의 장거리미싸일들을 공개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비난

일본 오끼나와현 지사가 9월 13일 미군기지건설과 관련한 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군기지건설을 위한 물자운반에 특상《자위대》의 직승기들을 동원하기로 한 당국의 그릇된 조치를 규탄하면서 그는 현내 미군기지건설을 반대하였다. 그러면서 당국이 현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밀렵행위와의 투쟁 강화

나미비아가 밀렵행위를 막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9월 13일 이 나라 경찰당국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잠베지강류역에 있는 국립공원들에서 16명의 밀렵자들을 체포하였으며 57개의 상아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코끼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것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61159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